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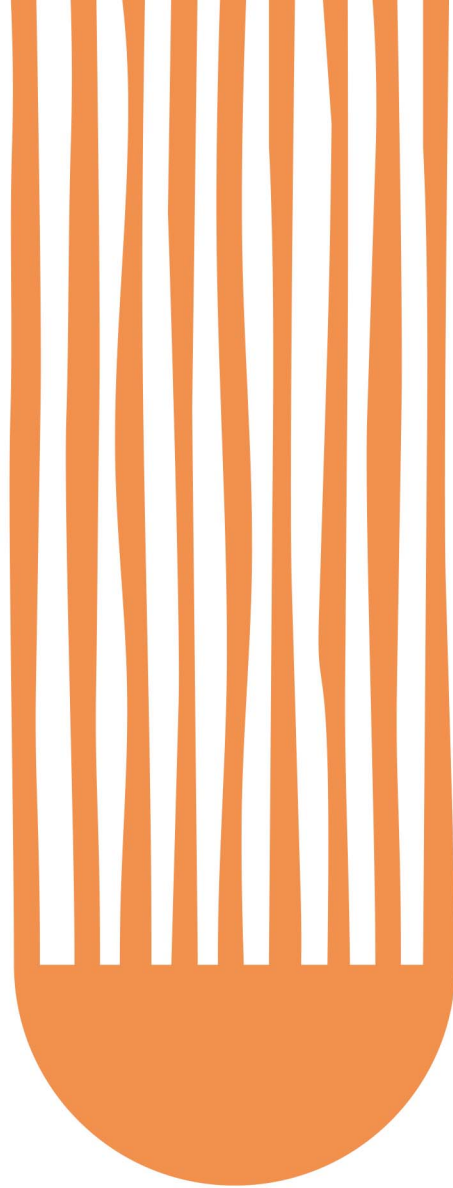


에듀원 콘텐츠 저작권 안내

(주)에듀원에서 제공하는 보충자료입니다. 아래의 콘텐츠 저작권 고지를 반드시 인지하시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에 실린 모든 편집 구성 및 형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주)에듀원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재, 전송,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콘텐츠 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웹하드, P2P 등 (주)에듀원으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온·오프라인에서의 공유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 '1:1문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김태영

정답 및 해설

100발
100중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고등영어

B

03 Together We Grow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08

- 01 ④
 02 (1) awful (2) pale (3) frustration (4) ignore (5) confusion
 03 ⑤ 04 ①

- 01 ④는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솔직한 ② 어리석은 ③ 용서하다 ④ 추상적인 : 구체적인 ⑤ 동정
- 02 (1) awful(끔찍한): 매우 나쁘거나 불쾌한
 (2) pale(창백한): 거의 흰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3) frustration(실망): 짜증나거나 속상한, 안달한 느낌 (annoyed: 짜증이 난 / upset: 속상한 / impatient: 안달하는, 짜증난)
 (4) ignore(무시하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듣지 못했거나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다
 (5) confusion(혼란):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상태
- 03 address: 부르다; 주소
 • 그 웹사이트는 내가 산 태블릿을 보내주기 위해 내 주소를 물어보았다.
 • Lee 선생님은 출석부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출석을 부르지 않았다.
 ① 피하다 ② 걱정하다 ③ 요구하다 ④ 용서하다
- 04 우리 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을 할당을 받았다. (줄)
 ① 우리는 호수로 뱃놀이를 갔다. (뱃놀이)
 ② 내 부모님은 첫 번째 줄에 앉아 계셨다. (줄)
 ③ 단풍나무가 길을 따라 일렬로 서 있다. (줄)
 ④ 너는 군대에서 완벽하게 줄을 서야 한다. (줄)
 ⑤ 그녀는 그 가수를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앞줄에 가려고 애썼다. (줄)

C 교과서 핵심 대화 p.009-010

- 01 ① 02 ②

- 01 ①은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②③④⑤는 걱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① 나는 회의를 망쳐서 기뻐.
 ②~⑤ 나는 회의를 망칠까 봐 불안해[초조해/걱정이 돼].
- 02 빈칸에는 어려움에 처한 상대방에게 충고를 해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②③⑤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뜻의 충고하는 표현이고,
 A: 이 새로운 연구 과제는 진을 빼게 해. 내 능력 밖이야.
 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때?
 ②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겠어.
 ③ 도움을 요청하지 그래?
 ⑤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아.

C 교과서 기타 대화 p.011

- 01 T 02 T

- 01 준호는 떠나 있는 지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02 Lisa는 자신의 다른 친구들이 그녀가 다소 이기적이고 물질주의적이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12

- 01 ③ 02 ② 03 I think you should stop using it

- 01 A가 '너무 걱정하지마'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했으므로 빈칸에는 ③ '친구들이 나를 Jenny가 말한 그대로 생각할까 봐 걱정이 돼'라는 걱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the long face: 우울한[시무룩한] 얼굴)
- 02 ② '나는 화학을 잘 못해서 걱정이 돼.'라는 걱정을 나타내는 말에 '내가 너라면 걱정을 할 텐데'라는 충고의 대답은 어색하다.
 ⑤ Good for you!: 잘 했어!
- 03 I think you should + 동사원형 ~: 나는 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
 stop + 동명사: ~하는 것을 멈추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p.013-014

- 01 what she was going to do the next[following] day
 02 There is no use regretting

- 01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ask[inquire of] (+ 목적어) + 의문사 + 주어 + 동사
 Samuel은 Maggie에게 전화를 해서 그녀가 다음 날 무엇을 할 예정인지 물었다.
- 02 「There is no use + 동명사: ~해도 소용없다」 구문을 이용한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1 p.015

- 01 (1) said to (2) Do you have (3) Focus (4) said
 02 (1) what story I was going to tell
 (2) if[whether] she wanted to go to the movies
 (3) to open the window
 (4) not to run in the hall
 03 (1) asked me what I wanted for him to do there
 (2) asked her if[whether] she ate lunch in that restaurant
 (3) told Shane to take a walk at the park the next[following] day
 (4) inquired of Terry if[whether] he could send me a postcard the following week

- 01 의문문과 명령문의 직접화법은 인용 부호(“ ”)와 전달동사를 이용한다. 전달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안 쓸 때는 say를, 전달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쓸 때는 say to를 이용한다.
- 02 (1)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ask[inquire of] (+ 목적어) + 의문사 + 주어 + 동사」 구문, 전달 동사 said to → asked[inquired of]로 바꾸고, 인용 부호(“ ”) 삭제, 의문사 what을 접속사로 사용, 인칭대명사 전환: you → I, 주절 시제와 일치시킴: are → was, 피전달문 평서문 어순(주어 + 동사)로, ? → .로 바꾼다.
 Ted는 나에게 “너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니?”라고 말했다.
- (2)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ask[inquire of] (+ 목적어) + if[whether] + 주어 + 동사」 구문, 전달 동사 said to → asked[inquired of]로 바꾸고, 인용 부호(“ ”) 삭제, 접속사를 if[whether]로 쓴다. 인칭대명사 전환: you → she, 주절 시제와 일치시킴: want → wanted, 피전달문 평서문 어순(주어 + 동사)로, ? → .로 바꾼다.
 Chris는 Jane에게 “너는 영화 보러 가길 원하니?”라고 말했다.
- (3) 명령문의 간접화법: 「tell[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to 부정사
 그는 “창문을 열어라.”라고 말했다.

(4) 부정명령문의 간접화법: tell[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not + to부정사

선생님은 소년들에게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다.

03 (1)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ask[inquire of] (+ 목적어) + 의문사 + 주어 + 동사」 구문이고, 장소 부사 here는 there로 바꿔 쓴다.

그는 나에게 “너는 여기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길 원하니?”라고 말했다.

(2)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ask[inquire of] (+ 목적어) + if[whether] + 주어 + 동사」 구문이고, 전달 동사는 과거 시제이므로 said to 는 asked로, 인용 부호(“ ”) 삭제, 접속사 if[whether] 삽입, 인칭대명사 you → she, 동사 시제 일치(과거), 지시대명사 this는 that으로 바꿔 쓴다.

Peter는 그녀에게 “너는 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니?”라고 말했다.

(3) 명령문의 간접화법은 「tell[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이고, 시간 부사 tomorrow는 the next[following] day로 바꿔 쓴다.

Mary는 Shane에게 “내일 공원에서 산책하렴.”이라고 말했다.

(4)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ask[inquire of] (+ 목적어) + if[whether] + 주어 + 동사」 구문이고, 시간 부사구 next week은 the following week으로 바꿔 쓴다.

나는 Terry에게 “너는 엽서를 나에게 보내 줄 수 있니?”라고 말했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2**

p.016

01 (1) 그녀는 떠났기 때문에 여기서 그녀를 찾아봐도 소용없다.

(2) 그 선생님은 수업을 마무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새로 출시된 그 영화는 다시 볼 가치가 있다.

(4) 뭘 먹어야 할 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02 (1) is used to using (2) to do so (3) make it a rule to be up

(4) When it comes to getting

03 (1) look forward to receiving (2) prevent cancer from developing

(3) be about to strike (4) On arriving in New York

01 (1) It is no use + 동명사: ~해도 소용없다

(2) cannot help + 동명사: ~하지 않을 수 없다

(3) be worth + 동명사: ~할 가치가 있다

(4) 의문사 what + to부정사: 무엇을 ~할지

02 (1) be used to + 동명사: ~하는 데 익숙해지다

Janet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다.

(2) It takes + 시간 + to부정사: ~하는 데 시간이 들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50년 이상 걸렸다.

(3) make it a rule + to부정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나는 보통 늦어도 7시까지 기상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4) when it comes to + 동명사: ~에 관해서라면

일을 성사시키는 것에 관한 한 그는 쓸모가 없다.

03 (1) look forward to + 동명사: ~하기를 고대하다

(2) prevent A from + 동명사: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3) be about + to부정사: 막 ~하려고 하다

(4) on + 동명사: ~하자마자

R 교과서 기타 **지문**

p.021

01 F 02 T

01 민재는 자신이 진수에게 합창단에서 노래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 진수는 민재가 자신에게 ~ 요청한 사실을 떠올리게 했음.)

02 나는 시험 전에 내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지 않기로 결정했다.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지기**

p.022-023

01 나는 그 모든 추상적인 이론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02 시험이 거의 끝난다는 희망 03 have a problem with

04 (g)uilty 05 teasing 06 so did I

07 has been avoiding 08 to help 09 calling

10 who her friends are 11 부르다 12 (f)iled into

13 worried 14 그것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15 Frustrated 16 sit[ting] 17 To my astonishment

18 그것을 재빨리 훑쳐보고 있었다 19 what to think

20 what I should do 21 myself 22 failing

23 부정행위자가 되는 것보다는 낙제생이 되는 것이 더 나아.

24 had put 25 (a)wkwardly 26 writing 27 to be seen

28 conflicted 29 reporting 30 did

31 has been getting 32 How silly I am!

33 (o)nce 34 (c)onfusion 35 walk(ing) 36 surprised

37 울음을 참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었다. 38 crying

39 그녀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40 (p)ity 41 ~뒤에

42 (She a)sked me if[whether] I thought she was a cheat, too.

43 worried 44 how things were going 45 (f)rank

T 내신 1등급 대비 **1회**

p.024-035

01 ③ 02 ② 03 ① 04 fare 또는 fear 05 ①

06 (l)eave 07 ② 08 ① 09 ②

10 오해가 있었음에 틀림없어.

11 I'm rather nervous that they'll think 12 ④ 13 ③

14 ⑤ 15 ① 16 ⑤ 17 ⑤

18 He inquired of me when I wanted to join the tennis club.

19 there is no use pretending to be dead 20 ④ 21 ④

22 ① 23 ③

24 (1) if[whether] I was coming to see her

(2) when she had read Mark Twain's novel

(3) not to ride his bicycle on that road

25 ⑤

26 advised children and the elderly not to engage in outdoor activities

27 I cannot help feeling sympathy for Henry and the tough decisions he faces.

28 ⑤ 29 ⑤

30 get all those abstract theories straight in my head 31 ①

32 ③ 33 "Does she have a problem?" Lisa said to me.

34 그녀의 집에 전화해 봐도 역시 소용없었다. 35 ④ 36 ③

37 ②

38 Mr. Reed told us to stop writing and put our pens down. 39 ③

40 ④ 41 Everyone would hate me if I did that.

42 ①, ④ 43 ③

44 It was no use trying to hold back the tears. 45 ③

01 ①②④⑤는 '동사: 명사' 관계이고 ③은 '동사: 형용사' 관계이다.

① 실패하다 : 실패 ② 사과하다 : 사과 ③ 기쁘게 하다 : 기분 좋은

④ 수술하다 : 수술 ⑤ 피하다 : 회피

02 ② frank(솔직한): '당신이 하는 말이 솔직하지 못하고 간접적이다'는 'honest and direct in what you say(당신이 하는 말이 솔직하고 직접적이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① tough(힘든): 하거나 다루기에 어려운
 ③ sigh(한숨): 길고 깊은 숨을 내쉬는 행동이나 소리
 ④ cheat(부정행위를 하다):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속이다
 ⑤ argument(말다툼; 논쟁):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종종 화를 내며 하는 대화나 토론
- 03 '누군가를 심술궂은 방법으로 비웃거나 화나게 하다'는 ① '놀리다'이다.
 누군가를 심술궂은 방법으로 비웃거나 화나게 하는 것은 괴롭힘의 가장 흔한 형태들 중 하나이다.
 (make fun of: ~을 놀리다 / provoke: 화나게 하다 / bullying: 괴롭힘, 악자를 괴롭히기)
 ② 용서하다 ③ 부르다 ④ 떠나다 ⑤ 불평하다
- 04 fare(요금), fear(두려움)
 ① approach(다가가다): 누군가나 무언가에 가까워지다
 ② encouragement(격려): 용기나 정신력, 자신감으로 누군가를 고무시키는 행위
 ③ fail(낙제하다; 실패하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다
 ④ report(보고하다): 자신이 듣거나, 보거나, 행한 무언가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
- 05 ① 'hold forth(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다)'는 hold back(~을 억제하다)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나는 그녀가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했을 때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② 많은 사람들이 Pantheon에서 출처 들어갔다 나오곤 했다.
 (filing in[into]: 줄 서서 들어가다)
 ③ 그는 그녀의 답안지를 몰래 훔쳐보다가 그녀에게 들켰다.
 (stealing a glance at: ~을 몰래 훔쳐보다)
 ④ 나는 그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 실험을 시도했다.
 (get A straight in one's head: A를 명확하게 이해하다)
 ⑤ 우리가 어느 정도 힘든 시기의 끝을 보려면 2년은 더 걸릴 것이다.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힘든 시기[일의 끝])
- 06 leave: 떠나다; 그대로 두다
 • 그녀를 비가 오는데 밖에서 기다리게 두지 말아라.
 • 우리는 정각에 도착하기 위해 한 시간 이내에 떠나야 한다.
- 07 의사들이 지난밤에 응급 맹장 수술을 했다. (수술) (appendicitis: 맹장염)
 ① 오류가 이 작업에 사용되는 파일 중 하나에서 발생했다. (작업)
 ② 정기적인 정비는 엔진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한다. (작동) (guarantee: 보장하다)
 ③ 그녀는 어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그녀의 폐 수술을 받았다. (수술) (lung: 폐 / tumor: 종양)
 ④ 경찰이 테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 (launch: 시작하다)
 ⑤ 그 다국적 기업은 직원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 08 B가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 (반가운 소리네.)'라고 답했으므로 A의 빈칸에는 좋은 일에 해당하는 ① '나는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기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왜 그런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지? 무슨 일이 있지?
 ③ 나는 건다가 내 휴대폰을 떨어트려 망가졌어.
 ④ 내 친구들은 내가 이기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
 ⑤ 웅변대회에서 내가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 긴장이 돼.
- 09 ② B가 소중한 충고 고맙다고 했으므로 A에는 충고를 해주는 말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A: 나는 이 모든 것이 너를 얼마나 화나게 하는지 알고 있어.
 B: 너의 소중한 충고 매우 고마워.
 ① A: 난 우리가 좀 더 큰 난로를 사야한다고 생각해.
 B: 나도 네 의견에 동의해. 이번 겨울은 더 추울 거래.
 ③ A: 나 지갑 잃어버렸어. 어떻게 해야 하지?
 B: 분실물 보관소에 가서 찾아보는 것이 어때?
 ④ A: 그 버스는 어제 젖은 도로에서 미끄러져서 통제력을 잃었다.
 B: 라디오에서 그 이야기 들었어. 다친 사람 없었니?

- ⑤ A: 매년 그들을 볼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어.
 B: 나도 역시 그래. 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 10 must have + 과거분사: ~이었음에 틀림없다 (과거의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A: Sarah, 왜 그런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지? 무슨 일이 있지?
 B: 방금 Jenny가 다른 내 친구들에게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
 A: 아, 정말 화나겠구나. 오해가 있었음에 틀림없을 거야.
 A: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좋은 사람인 걸 나는 알고 있고, 그들도 분명히 그것을 알 거야.
 B: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나는 내일 Jenny와 얘기를 해 봐야겠어.
 A: 좋은 생각이야! 모든 일이 다 잘되길 바랄게.
- 11 'I'm rather nervous that ~: 나는 ~이 다소 걱정이 돼 (걱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한다.
 12 대화에서 A가 요즘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는 말에 B의 대화가 이어지고, 이어서 A의 응답이 '충고 고마워.'라고 했으므로 B에는 충고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I think you should + 동사원형 ~: 나는 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
 A: 나는 요즘 건망증이 심해.
 B: 나는 다이어리에 너의 중요한 것들을 적어야 한다고 생각해.
 A: 충고 고마워.
- 13 ③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는 친구에 관한 고민을 다루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충고하는 표현(How about ~ing: ~하는 것이 어때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4 ① Angry Bird의 물건은 그의 친구에 의해 망가트려진 적이 있었고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stuff: 물건)
 ② Angry Bird의 친구는 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데 그것이 그를 화나게 한다.
 ③ 또 다른 청취자는 Angry Bird가 솔직하게 그의 친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충고 중 하나는 Angry Bird의 친구가 그의 물건들을 만지지 못하도록 사물함에 넣고 잠그는 것이다.
 ⑤ 한 청취자는 Angry Bird의 친구들이 그를 물질주의자라고 여길까 봐 걱정하고 있다. (→ 청취자가 아니라 Angry Bird가 걱정하고 있다.)
- 15 (A)에서 걷는 중에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C)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하고 (D)에서 걸으면서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충고하자 (B)에서 거의 다 했으니 계속 걷자고 얘기하는 흐름이 적절하다.
- 16 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ask[inquire of] (+ 목적어) + if[whether] + 주어 + 동사」 구문, 전달 동사 said to → asked[inquired of]로 바꾸고, 인용 부호(“ ”) 삭제, 접속사를 if[whether]로 씌, 인칭대명사 전환: you → I, 주절 시제(과거)와 일치시킴: submit → submitted, 피전달문 평서문 어순(주어 + 동사)로, you → I, ? → .로 바꿔 쓴다.
- 17 ⑤ 「cannot help + 동명사」 구문이므로 feel을 feel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나는 친구들과 치킨을 먹고 싶다.
 ② 시험 바로 전에 공부해도 소용없다.
 ③ 일상적인 일을 즐겁게 하는 자세를 가져라.
 ④ 때때로 다른 무언가를 시도할 가치가 있다.
 ⑤ 그녀는 그 경쟁에 대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 18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으로 「ask[inquire of] (+ 목적어) + 의문사 + 주어 + 동사」 구문에 맞도록 영작한다.
- 19 「there is no use + 동명사 (~해도 소용없다)」 구문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 20 ④ 아버지는 그들에게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지 아시나요?”라고 물었다. (ask는 타동사이므로 asked to → asked)
 ① 그 소녀는 내가 그녀와 함께 조깅하길 원하는지 물었다.
 ② 그 선생님은 그녀에게 “너는 그것을 전부 너 혼자서 했니?”라고 말했다.
 ③ 우리 오빠는 나에게 “내가 여기에 있는지 엄마가 알고 계시니?”라고 말했다.
 ⑤ Jennifer는 나에게 내가 양치질을 하고 나서 수도꼭지를 잠갔는지 물었다.

- 21 「의문사 + to부정사」는 「의문사 + 주어 + should[can] +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들끼리만 내버려둬야 할 때를 배워라.
- 22 ③은 명령문의 간접화법: tell[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to 부정사로 쓴다. 그러므로 said to → told, 목적어 them, 인용 부호(“ ”) 삭제, 동사 stop → to stop으로 바꿔 쓴다. 따라서 ①이 알맞게 바꿔 썼다.
그 관리자는 그들에게 “일하는 것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라고 말했다.
- 23 ③은 전치사 to이고, 나머지는 모두 to부정사(to + 동사원형)의 to로 쓰였다.
①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꺼렸다. (reluctant: 꺼리는, 마지못한)
② 제가 언제든지 비행기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③ 나는 주차 요금을 물리는 것은 정말 반대다.
④ 발명가들은 실패에서 기꺼이 배우려고 해야 한다.
⑤ 또한,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덜 활동적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 24 (1)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ask[inquire of] (+ 목적어) + if[whether]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쓴다.
Jade 선생님은 나에게 “너는 나를 보러 오고 있니?”라고 말했다.
(2)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ask[inquire of] (+ 목적어) + 의문사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쓴다.
Jim은 Soo에게 “너는 언제 Mark Twain의 소설을 읽었니?”라고 말했다.
(3) 명령문의 간접화법은 「tell[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이고, 지시대명사 this는 that으로 바꿔 쓴다.
나는 내 남동생에게 “이 도로에서 네 자전거를 타면 안돼.”라고 말했다.
- 25 ⑤ prevent A from + 동명사: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① 나는 너를 다시 보기를 고대하고 있어. (see → seeing) (look forward to + 동명사: ~하기를 고대하다)
② 그는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있다. (getting → to get) (make it a rule + to부정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다)
③ 나는 그녀를 떠나도록 설득하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다. (to persuade → persuading) (have difficulty (in) + 동명사: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④ 위약금이 너무 비싸서 결국 내 손해가 더 커질 거야. (lose → losing) (end up + 동명사: 결국 ~하게 되다) (penalty: 벌금, 위약금)
⑤ 그 무엇도 그가 소리 높여 부당함에 반대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injustice: 불평등; 부당함)
- 26 부정명령문의 간접화법인 「tell[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not + to부정사」 구문을 이용한다.
- 27 「cannot help + 동명사 (~하지 않을 수 없다)」 구문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 28 ③ looked back과 looked away는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관계이므로 look을 looked로 고쳐 써야 한다.
- 29 죄책감이 드는 것처럼 보였고 시선이 마주치는 걸 피한다는 내용이므로 ⑤는 avoiding 같은 단어로 바꿔 써야 한다.
- 30 「get A straight in one's head (A를 명확하게 이해하다)」 구문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나는 그 모든 추상적인 이론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리가 싫었다.
- 31 ③과 ①의 subject는 「과목」의 의미로 쓰였다.
① 그는 암기 과목을 잘한다. (과목)
② 기후 변화는 아직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다. (주제)
③ 로마 제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자기 지배하에 두었다. (지배하에 두다)
④ 우리는 그 실험을 위해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피험자들이 필요하다. (연구 대상)
⑤ 고전적인 풍경은 많은 18세기 화가들에게 인기 있는 소재였다. (소재)
- 32 (A) 놀리면서 말했다는 내용이므로 teasing이 적절하다. (imitating: 모방하면서)
(B)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부르고 있었다는 내용이므로 addressing이 적절하다. (greeting: 인사하는)
(C) 줄 서서 들어갔다는 내용이므로 filed가 적절하다. (piled: 쌓았다)

- 33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직접화법은 인용 부호(“ ”)와 전달동사 say (to)를 이용한다.
- 34 「It is no use + 동명사」는 「~해도 소용없다」라는 의미이다.
- 35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내용이므로, 앞에 부정어 not이 있기 때문에 ②의 unfair는 fair와 같은 단어로 바꿔 써야 한다.
- 36 앞에서 두 문제의 답을 쓸 수가 없었으며 (C)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 이유를 말하고 (B)에서 절망한 채로 고개를 들자 Emma가 보였고 (A)에서 그녀가 스마트폰을 훑쳐보는 것을 목격한다. 마지막으로 (D)에서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37 ② 목적어가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므로 재귀대명사의 재귀용법인 myself로 고쳐 써야 한다.
- 38 명령문의 간접화법은 「tell[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to부정사」로 쓴다. 따라서, 주어는 Mr. Reed, said to → told로, 목적어 us, 인용 부호(“ ”) 삭제, 동사 stop → to stop으로 바꿔 쓴다.
- 39 주어인 문장은 「선생님께 Emma에 대해 일리는 것을 생각해 보았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고, ③ 뒤 문장에서 「그렇게 하면 모두가 나를 싫어 할거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므로 ③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40 ④ 친구 Emma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내용으로, feeling(기분)을 수식하는 awesome(엄청난, 어마어마한)은 awful(끔찍한) 같은 단어로 바꿔 써야 한다.
- 41 가정법 과거: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 주어 + would + 동사원형 ...」 (~라면 ...할 텐데)
- 42 ①, ④ Emma가 그동안 부정행위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내용의 감탄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감탄문 어순: 「How + 형용사[부사] (+ 주어 + 동사)!」, 「What a(n) + 형용사 + 명사 (+ 주어 + 동사)!」
- 43 ③ 「지각동사 feel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현재분사])」 구문이므로, turns는 turn(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44 「It is no use + 동명사 ~ (~해도 소용없다)」라는 구문을 이용한다.
- 45 친구와 오해를 풀고 있는 내용이므로 부정행위에 대한 학교 교칙에 관한 내용인 ③은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p.036-047

01 ②	02 Put away	03 ⑤	04 ②	05 ③
06 (f)rustrate	07 ④, ⑤	08 ④	09 ⑤	
10 ②	11 ④			
12 친구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네 물건을 만지는 것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				
13 In my opinion, you ought to lock your things in your locker				
14 ⑤	15 ③	16 ①	17 ④	
18 The old man is accustomed to getting up early.				
19 (1) He said to me, “Do you know her address?”				
(2) She said to me, “Where did you put the watch yesterday?”				
(3) My homeroom teacher said to me, “Don’t be late for school tomorrow.”				
20 ⑤	21 (1) who he would invite the next day	(2) ○	22 ③	
23 ①	24 ③	25 ⑤		
26 (1) talking (2) seeing (3) to get (4) finding				
27 He ordered us not to take a picture in that room.			28 ②	
29 ③ she did not have a problem with anything				
⑤ and then looked away quickly				
30 ④	31 ⑤	32 telling, but, bring myself to do it		
33 “Stop writing and put your pens down,” said Mr. Reed.			34 ⑤	
35 ③	36 Lisa asked me whether she had a problem.		37 ⑤	
38 ②	39 ②	40 ①	41 ①	

42 I was asking myself, "Should I tell Mr. Reed once the exam is finished?"

43 ④ 44 "Do you think I'm a cheat, too?" she said to me.

45 ④

- 01 ② text(문자 메시지)는 to a written message that you send using a mobile[cell] phone(휴대폰을 사용하여 보내는 문자 메시지)의 의미로 제시된 영영 풀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forgive(용서하다): 누군가에게 화내는 것을 그만 두다
 - ④ abstract(추상적인): 특정한 예시나 실제 사건보다는 전반적인 생각에 바탕을 둔
 - ⑤ physics(물리): 물체, 물질, 자연력에 관한 탐구와 관련된 과학
 - ⑥ guilty(죄책감이 드는):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아주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는 감정[느낌]
- 02 'put away: ~을 치우다' 구문을 이용한다.
- 03 나는 그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요 개념들과 기본 사항들을 간단히 언급한 공개 서한을 그에게 보냈다.
- ① 논쟁 ② 실망
 - ③ 동정 ④ 격려
 - ⑤ 오해
- 04 ②는 '나는 즉시 호텔로 갈 것이다.'라는 의미로 밑줄 친 부분 'make one's way to...'는 '...로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① 그는 기말고사를 매우 열심히 준비했다.
 - ③ 놀랍게도, 나는 수학에서 만점을 받았다.
 - ④ 그 프로그램은 너무 재밌어서 그것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 ⑤ 오늘 오후에 우리 발표 자료 좀 검토할 시간 있니?
- 05 빈칸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본문'이라는 뜻을 가진 ③ text가 적절하다.
- 내가 최종 득점을 네게 문자로 보내 줄게.
 - 내가 하는 일은 페이지에 본문과 그래픽을 배치하는 것이다.
- ① 향하다 ② 함께 쓰다 ④ 피하다 ⑤ 돌아오다
- 06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짜증나고 화나게 만들다: frustrate(좌절시키다)
- 07 <보기>와 ④, ⑤의 overcome은 모두 '극복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보기> 그녀는 부상을 극복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땀다. (극복하다)
- ① 그 사랑한 여자는 연기에 질식되었다. (압도당하다)
 - ② 결승전에서 스웨덴이 프랑스를 쉽게 이겼다. (이기다)
 - ③ 나는 배불리 먹고 나니 졸음이 몰려왔다. (압도당하다) (drowsiness: 졸음)
 - ④ 그 두 정당은 그 사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극복하다)
 - ⑤ 나는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적을 이기는 사람보다 용감하다고 믿는다. (극복하다, 아리스토텔레스 명언)
- 08 ④ 약속에 늦은 C에게 충고하는 표현인 'You had better leave a little earlier during traffic jam'. 'I think you should [You had better] leave a little earlier during rush hour[traffic jam]. (혼잡 시간[교통 체증]대에는 조금 더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 적절하다.
- 09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할까 봐 걱정하는 A에게 안심시켜 주는 표현인 ⑤ '너무 걱정하지마'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①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해.
 - ② 잘됐다.
 - ③ 나는 그 말을 들어서 기뻐.
 - ④ 그것 좋은데!
- 10 밑줄 친 부분은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마음속에 그 감정을 떠올리는 것이 어때?'라는 의미로 ② '충고하기'가 적절하다.
- Why don't you + 동사원형 ~: ~하는 것이 어때?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
- 11 준호가 한국에 2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 기쁜 감정을 공유하는 내용으므로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쁘다.
- 12 Say that you don't like others touching your stuff.를 참고한다.

- 13 In my opinion, you ought to + 동사원형 ~: 내 생각에 너는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
<조건>과 다르게 I think you should lock your things in your locker ~로 표현할 수도 있다.
- 14 ⑤ '노래가 끝나면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 대화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 ①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인가? → 'What's the Problem?(고민이 무엇인가요?)'
 - ② 왜 Angry Bird는 화가 났나? → 한 친구가 허락도 없이 물건을 가져가고, 가끔 망가뜨리기까지 하고서 "미안."이라고만 말했다 때문.
 - ③ Angry bird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좀 이기적이고 물질주의라고 생각할까 봐.
 - ④ Captain Maple은 Angry Bird에게 무엇을 추천했나? → 다른 사람들이 네 물건을 만지는 것이 싫다고 솔직히 이야기 하라고 함.
- 15 (B)에서 첫인사를 한 후 (D)에서 근황을 알려주고 (A)에서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을 한 후 마지막으로 (C)에서 끝인사를 하는 흐름이 적절하다.
- 16 ① 「make it a rule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borrowing을 to borrow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나는 친구들에게 돈을 절대로 빌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 ② 이 도시의 인구는 계속 줄어든 것 같다.
 - ③ 그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기꺼이 그의 신장을 기증했다. (donate: 기증하다 / kidney: 신장, 콩팥)
 - ④ 정부는 그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하고 있다.
 - ⑤ 나는 오늘밤 외식할 기분이 아니야. 피자를 좀 시키자.
- 17 ③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ask[inquire of] (+ 목적어) + 의문사 + 주어 + 동사」 구문이다.
- 나는 그에게 얼마동안 불어를 공부해 왔는지 물었다.
- 18 「be accustomed to + 동명사 (~하는 데 익숙해지다)」 구문을 이용한다.
- 19 의문문과 명령문의 직접화법은 인용 부호(" ")와 전달 동사 say (to)를 이용한다.
- (1)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직접화법 전환은 inquired of[asked] → said to로 바꾸고, 콤마(,) 삽입, 접속사를 if [whether]를 삭제하고, 일반동사 의문문 「Do + 주어(인칭 대명사 전환 I → you) + 동사원형 ~?」를 인용 부호(" ") 속에 넣어 쓴다. 그는 나에게 내가 그녀의 주소를 알고 있는지 물었다.
 - (2)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직접화법 전환은 asked[inquired of] → said to로 바꾸고, 콤마(,) 삽입, 「의문사(Where) + did(과거시제 일치) + 주어(인칭대명사 전환 I → you) + 동사원형 ~?」를 인용 부호(" ") 속에 넣어 쓴다.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the day before → yesterday로 바꿔 쓴다. 그녀는 나에게 내가 그 전날 그 시계를 어디에 두었는지 물었다.
 - (3) 명령문의 직접화법 전환은 told → said to로 바꾸고, 콤마(,) 삽입, 부정 명령문 「Don't + 동사원형」을 인용 부호(" ") 속에 넣어 쓴다.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the next day → tomorrow로 바꿔 쓴다. 나의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그 다음 날 학교에 지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 20 ⑤ 「expect + to부정사」는 「look forward to +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 우리는 다음 주에 당신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 21 (1)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ask[inquire of] (+ 목적어) + 의문사 + 주어 + 동사」 구문이고, 시간 부사 tomorrow는 the next day로 바꿔 쓴다. 엄마는 그 소년에게 그가 다음 날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물었다.
- (2) 명령문의 간접화법은 「tell[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이다. 그 여성은 나에게 그 박스를 방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 22 ③ 「reluctant + to부정사 (~하기를 주저하는)」만 옳은 문장이다.
- ① 나는 찌는 듯한 태양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싶어! (to take → taking) (blazing: 타는[찌는] 듯이 더운)
 - ②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셔츠에 묻은 얼룩을 지웠다. (arrive → arriving) (stain: 얼룩)
 - ③ 그는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그것에 대해 말하길 꺼리는 듯 보였다. (oddly: 이상하게 / reluctant: 주저하는, 꺼리는)

- ④ 그녀는 아침에 일어난 후 물을 마시는 것에 익숙하다. (to drink → drinking)
 ⑤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비록 엄청난 거금이 들더라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to save → saving)
- 23 ① 의문문의 직접화법 전환은 인용 부호(“ ”)와 전달동사 say (to)를 이용하고, the day before는 yesterday로 바꿔 쓴다.
 John은 나에게 어제 Tom을 보았는지 물었다.
- 24 ③ 「cannot help + 동명사」는 「cannot (help) but + 동사원형」, 「have no choice but + to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① crying → cry
 ② to cry → crying
 ④ but to cry → crying 또는 help but to cry → but cry
 ⑤ crying → to cry
- 25 ⑥는 「만약 ~라면」의 의미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지 아닌지」의 의미이다.
 ① 그녀는 나에게 내가 오늘 영화를 보러 갈 것인지 물었다.
 ② 그는 나에게 내가 그 가게 문을 닫았는지 물었다.
 ③ Mary는 그녀의 엄마에게 그녀가 Helen과 함께 외출해도 되는지 물었다.
 ④ 선생님은 나에게 그 해에 과학 수업이 재밌었는지 물어 보셨다
 ⑤ 7세 미만 어린이들은 성인 동반 시 무료이다.
- 26 (1) It is no use + 동명사: ~해도 소용없다
 엄마한테 말해도 소용없어!
 (2) on + 동명사: ~하자마자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3) where + to부정사: 어디에서 ~할지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버스 운전사한테 물었다.
 (4) have difficulty + 동명사: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우리는 서울에서 목을 곳을 찾느라 고생했다.
- 27 부정명령문의 간접화법은 「tell[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not + to부정사」 구문이고, this room은 that room으로 바꿔 쓴다.
- 28 시험 기간이라 속이 안 좋다는 글 다음에 (A)에서 오늘은 물리 시험이 있고 (D)에서 물리를 싫어하는 이유를 얘기한 후, (C)에서 오늘이 마지막 시험 날이며, 마지막으로 (B)에서 밖에서 기다리면서 Emma를 보게 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29 ③ 「have a problem with」 구문이므로 for를 with로 고쳐 써야 한다.
 ⑥ 동사 looked를 수식하는 부사이므로 quick을 quickly로 고쳐 써야 한다.
- 30 재빨리 눈길을 돌리고 시선이 마주치는 걸 피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④ 「'죄책감이 드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아픈 ② 지루한 ③ 참을성 없는 ⑤ 자신감 있는
- 31 (A) 「지각동사 see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현재분사])」 구문이므로 sit[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B) to one's astonishment: 놀랍게도
 (C) 「의문사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what to think가 적절하다.
- 32 「bring oneself + to부정사 ((간신히) ~을 하다)」 구문을 이용한다.
- 33 명령문의 직접화법은 인용 부호(“ ”)와 전달동사 say (to)를 이용한다.
- 34 친구 Emma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해서 충격을 받았고 실망한 내용으로 필자의 심경으로는 ⑥ 「충격받고 실망한」이 적절하다.
 ① 슬프고 우울한 ② 침착하고 느긋한 ③ 행복하고 만족하는
 ④ 따분하고 무관심한
- 35 ③ 「준사역동사 help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to부정사])」 구문이므로 (to) prepare로 고쳐 써야 한다.
- 36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주어 + ask[inquire of] (+ 목적어) + if[whether] + 주어 + 동사」로 쓴다.
 = Lisa inquired of me if [whether] she had a problem.
- 37 친구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므로 ⑤는 followed 같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
- 38 Emma가 예전 같지 않고 변한 것 같아서 속상했다는 내용이므로 ② 「나는 Emma가 나를 계속 피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가 적절하다.
 ① Emma는 나를 계속 피하는 것 같다.
 ③ 사실, 나와 Lisa는 Emma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 ④ Emma는 또 다른 새로운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 같다.
 ⑤ 나는 Emma가 건강증이 심해졌고 오락가락 한다고 생각한다.
- 39 ② I와 conflict는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conflicted로 고쳐 써야 한다.
- 40 ①의 if는 「~인지 아닌지」인 뜻인 반면, (A)의 if와 ②③④⑤의 if는 모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만약」...「라면」의 뜻으로 쓰였다.
 ① 너는 그가 결혼을 했는지 아니?
 ② 네가 그를 만나면 그에게 이 쪽지 좀 전해 줘.
 ③ 누구든 전화하면 나 집에 없다고 해.
 ④ 그가 IT 기술을 향상시키면 그는 직장을 쉽게 구할 텐데.
 ⑤ 그들이 이른 기차를 탔으면 지금쯤 여기 도착했을 것이다.
- 41 친구와의 우정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 「친구」, 「우정」의 friend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파트너 ③ 구성원 ④ 지도자 ⑤ 관계
- 42 목적어가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므로 재귀대명사의 재귀용법인 myself를 이용하고 exam과 finish는 수동 관계이므로 수동태로 영작한다.
- 43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었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므로 ④ 「그녀는 우는 것에 익숙하다」는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cannot help + 동명사」는 「cannot (help) but + 동사원형」, 「have no choice but + to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 44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직접화법은 인용 부호(“ ”)와 전달동사 say (to)를 이용한다.
- 45 선생님이 믿고 기회를 한번 더 주셨다는 내용이므로 ④는 chance[opportunity] 같은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

수능형으로 끝내기

p.048~053

01 ⑤	02 ②	03 ⑤	04 ②	05 ①	06 ①
07 ⑤	08 ①	09 ⑤	10 ①	11 ④	12 ③
13 ⑤	14 ②	15 ①	16 ①	17 ③	18 ②

- 01 ⑤ 「Emma가 나를 본 뒤 재빨리 눈길을 돌렸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녀가 나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라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02 ② 나는 물리의 추상적인 이론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어서 물리를 싫어한다.
- 03 시험 기간이라 긴장해서 속이 불편했고 친구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실망스러워 한다는 내용이므로 필자의 심경으로는 ⑥ 「긴장되고 실망한」이 적절하다.
 ① 침착하고 냉소적인 ② 신나고 만족스러운
 ③ 조바심이 나고 분개하는 ④ 자신감 있고 기쁜
- 04 (A) 분사구문이고 Lisa와 tease는 능동 관계이므로 현재분사 teasing이 적절하다.
 (B) 긍정문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so + 조동사 + 주어」 구문이다.
 (C) 「It is no use + 동명사」 구문이므로 calling이 적절하다.
- 05 ①은 Lisa를 가리키고, 나머지는 모두 Emma를 가리킨다.
- 06 Emma가 친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므로 ① 「누가 그녀의 진정한 친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화를 내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이 전화를 했는지
 ③ 그녀는 오늘 물리 시험이 있다는 것
 ④ 왜 우리가 화나고 실망했는지
 ⑤ 그녀가 어떻게 물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 07 (A)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는 내용이므로 beyond(∼할 수 없을 정도의)가 적절하다. (below: ∼ 아래에)
 (B) steal a glance at(∼을 살짝 훑어보다) 구문이므로 steal이 적절하다. (avoid: 피하다)
 (C) 스마트폰을 치웠다는 내용이므로 put away가 적절하다. (push away: 밀어 쫓기다)
- 08 친구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을 포기하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 「부정행위자가 되는 것 보다 낙제생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② 나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
- ③ 음, 너무 늦지 않게 그에게 말하는 게 낫겠다.
- ④ Emma가 모든 시험에 낙제하는 것이 공평하다.
- ⑤ 나쁜 성적을 받는 것 보다 만점을 받는 게 더 낫겠다.
- 09 ⑤ 자신이 낙제할 거라고 추측만 했을 뿐 실제로 낙제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10 ⑥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의 수동 의미이므로 수동부정사 to be see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1 부정행위를 한 친구를 선생님께 알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④ '나도 언젠가 고성능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는 것은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 12 나는 모두가 나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 우정이 끝날까 봐 걱정되어서 내가 Reed 선생님께 Emma에 대해 말해야 할지 아닐지에 관해 많은 (A)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를 더욱 (B)갈등하게 만들었다.
 - ① 흥미 우울한 ② 복잡함 피곤한
 - ③ 혼란 갈등하는 ④ 감정 무책임한
 - ⑤ 호기심 오해를 받는
- 13 부정행위를 한 Emma를 보고 느낀 좌절감이 동정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므로 ⑤ 'faith(믿음, 신념)'은 frustration(좌절, 실망) 같은 단어로 바꿔 써야 한다.
- 14 Emma의 부정행위가 선생님께 들켜서 쫓겨나는 내용이므로 글의 분위기로는 ② '겁먹고 침통한'이 적절하다.
 - ① 평화롭고 고요한 ③ 슬프고 침울한
 - ④ 신나고 축제 분위기인 ⑤ 위협하고 절박한
- 15 ① 마지막 문제를 풀고 있을 때 Emma의 부정행위를 목격했다.
- 16 ① 「지각동사 hear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현재분사])」 구문이므로 come[com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7 (A) 아빠가 심장 마비를 일으키셔서 사실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이므로 In fact나 Actually(사실은, 실제로)가 적절하다.
(B)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지만 스마트폰을 봤다라는 내용이므로 but 또는 however가 적절하다.
 - 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만
 - ② 그러므로, 그래서 게다가, 더욱이
 - ③ 사실은 하지만, 그러나
 - ④ 게다가,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 ⑤ 사실은 예를 들면
- 18 I'm sorry I wasn't frank with you. I know you're a good friend. Will you forgive me?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나는 네가 좋은 친구라는 걸 알아. 나를 용서해 주겠니?)를 참고한다.



서술형으로 끝내기

p.054~056

- 01 I took 02 Emma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한다.
- 03 Sue는 물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 04 It was no use calling her at home, either.
- 05 Emma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해 온 것
- 06 ① what to do ② I ended up failing lots of exams
③ Stop writing and put your pens down
- 07 (1) 선생님에게 알리면 모두가 필자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선생님에게 알리면 Emma와의 우정이 깨질까봐 두렵다.
- 08 (A) looking (B) pity 09 (c)heat
- 10 아빠가 심장 마비를 일으키셔서 병원에 계신데, 오늘 큰 수술을 받으셔서 너무 걱정스럽다.

- 01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인다'라는 것은 '힘든 시기가 일이 끝나감'을 의미하므로 주어진 문장은 4행 시험 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는 문장 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2 'Emma는 물리에 문제가 없었고, 사실 그녀는 어떤 것에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물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have a problem with: ~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며, 앞에 부정어 not이 와서 '~에 문제가 없다'의 의미가 된다.

- 03 Sue를 놀리면서 물리가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말한 것은 반대로 Sue가 싫어하는 과목이 물리임을 의미한다.
- 04 「It is no use + 동명사 (~해도 소용없다)」 구문을 이용한다.
- 05 To my astonishment, she had her smartphone under the table and was stealing quick glances at it. (놀랍게도, 그녀는 책상 아래에 스마트폰을 두고 그것을 재빨리 훑쳐보고 있었다.)를 참고한다.
- 06 ① 「what + to부정사 (무엇을 ~할지)」 구문이므로 doing을 do로 고쳐 써야 한다.
② 「end up + 동명사 (결국 ~하게 되다)」 구문이므로 to fail을 fail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③ 「stop + 동명사 (~하는 것을 멈추다)」 구문이므로 to write를 wri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07 Everyone would hate me if I did that. (내가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나를 싫어할 거야.)와 what would happen to Emma and what about for me? What about our friendship? (Emma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는? 우리의 우정은 어떻게 되지?)를 참고한다.
- 08 Emma는 시험 시간 동안 그녀의 스마트폰을 (A)본 것이 Pendanski 선생님께 들켜서 방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그녀를 (B)동정하게 만들었다. driven out: 쫓겨나다
- 09 '부정행위를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오해를 받았다고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cheat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0 7~8행: because my dad had a heart attack two weeks ago. He is in the hospital, and I was very worried since he had a big operation today.를 참고한다.



교과서 핵심 | 본문 다시 쓰기

p.057~063

- 01 I was waiting outside the classroom.
- 02 I was feeling sick, and I always felt this way during exam week.
- 03 Today I had two exams, and unfortunately, physics was first.
- 04 I hated physics because I could never get all those abstract theories straight in my head.
- 05 But this was the last day of exams!
- 06 I could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 07 I took a deep breath and looked around.
- 08 I saw Emma at the front of the line.
- 09 She did not have a problem with physics.
- 10 In fact, she did not have a problem with anything!
- 11 She looked back at me and then looked away quickly.
- 12 I thought she looked guilty.
- 13 She was avoiding eye contact.
- 14 "Hi, Sue, now it's your favorite subject," said Lisa, teasing me as she approached.
- 15 Emma looked back again.
- 16 "Does she have a problem?" Lisa said to me.
- 17 "I thought you were friends."
- 18 "Yes, so did I," I said.
- 19 "But she has been avoiding me for two weeks now."
- 20 She promised to help me prepare for the physics exam, but she ignored all my calls and texts.
- 21 It was no use calling her at home, either.
- 22 Her mom just told me she was busy.
- 23 She doesn't remember who her friends are!"

24 I said with anger.
25 Mr. Reed was addressing the class, and the other students filed into the room.
26 I gave Lisa a worried look and followed them inside.
27 I could not answer the last two questions.
28 They were beyond me.
29 Frustrated, I looked up and saw Emma sitting in the front row.
30 To my astonishment, she had her smartphone under the table and was stealing quick glances at it.
31 I did not know what to think!
32 Was that how Emma always got good grades?
33 I felt really angry at her but did not know what to do.
34 I thought about telling the teacher but could not bring myself to do it.
35 "What would everyone else think of me?" I thought.
36 "It's not fair.
37 I've never cheated, and I ended up failing lots of exams."
38 With a sigh, I told myself, "Better to be a failure than a cheat."
39 Emma had put her smartphone away when I looked up again.
40 She looked back at me and smiled awkwardly.
41 "Stop writing and put your pens down," said Mr. Reed.
42 He started to collect the exam papers.
43 "Oh, no! I didn't finish all of the questions.
44 I'm going to fail again!"
45 I wanted to talk to Emma at lunchtime, but she was nowhere to be seen in the school cafeteria.
46 The next exam was history, my favorite subject, but I did not feel good about it.
47 I went to the school library to go over my notes one last time, but I could not concentrate on them.
48 I still felt really conflicted about Emma.
49 I considered reporting her to a teacher, but I just could not do it.
50 I said to myself, "Everyone would hate me if I did that.
51 It's not fair!
52 Emma has been getting good grades by cheating all the time.
53 How silly I am!
54 I thought we were friends!"
55 I was sitting behind Emma again at the history exam that afternoon.
56 This time, she did not take out her smartphone.

57 Maybe she did not need to cheat at history.
58 I was feeling awful again, but I had no problem with the exam.
59 I was asking myself, "Should I tell Mr. Reed once the exam is finished?
60 But what would happen to Emma and what about for me?
61 What about our friendship?
62 Wait, have we ever truly been friends?"
63 I was filled with total confusion.
64 I was on the last question when I saw that Emma had her smartphone under the table.
65 She was looking at it and did not hear Mr. Pendanski walking quietly up to her table.
66 He said nothing.
67 Emma looked up, surprised.
68 He picked up her exam paper and pointed to the door.
69 It was no use trying to hold back the tears.
70 She could not help crying.
71 Then she made her way to the door.
72 As everyone watched her, I felt all my frustration turn to pity.
73 As I was leaving school, I heard someone come up behind me.
74 It was Emma.
75 "Sue, wait!" she said.
76 "I want to talk to you."
77 Her face was pale, and her eyes were red.
78 "Do you think I'm a cheat, too?" she said to me.
79 I did not know how to answer her.
80 "Listen. I'm really sorry I didn't answer your calls.
81 Actually, I'm having a tough time because my dad had a heart attack two weeks ago.
82 He is in the hospital, and I was very worried since he had a big operation today.
83 I know it was foolish, but during the exam I was reading texts from my mom to see how things were going.
84 Just then, Mr. Pendanski caught me and thought I was cheating.
85 He believes me now and gave me a second chance.
86 I'm sorry I wasn't frank with you.
87 I know you're a good friend.
88 Will you forgive me?"

04 Speak to Be Heard

W 교과서 핵심 어휘 확인 문제 p.066

- 01 ①
 02 (1) element (2) hesitation (3) persuasion (4) credibility (5) delivery
 03 ① 04 ⑤

- 01 ①은 반의어 관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의어 관계이다.
 ① 거부하다 : 받아들이다 ② 산출하다 ③ 이점 ④ 토론 ⑤ 믿을 수 있는
- 02 (1) element(요소): 어떤 것의 일부
 (2) hesitation(망설임): 의심이나 불확실성의 상태
 (3) persuasion(설득): 누군가를 설득하는 행동
 (4) credibility(신뢰성): 누군가를 믿을 수 있거나 신뢰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성질
 (5) delivery(전달 태도): 누군가가 대중 앞에서 말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방식
- 03 문맥상 빈칸에는 '오류, 틀린 생각'의 뜻을 가진 ① fallacy가 적절하다.
 • 부자가 항상 행복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 토론에서 이기려면, 상대방의 의견에서 논리적 오류를 찾아야 한다.
- ② 보장 ③ 도전 ④ 동정 ⑤ 인식
- 04 <보기>와 ⑤의 yield는 '산출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금리가 높은 예금 계좌는 좋은 수익률을 낸다. (산출하다) (deposit account: 예금 계좌)
 ① 앞에서 다가오는 자동차에게 양보하십시오. (양보하다) (oncoming: 다가오는 (= approaching))
 ② 그는 그의 주식을 넘겨주기를 거부했다. (넘겨주다) (stocks: 주식)
 ③ 그는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에 굴복했다. (굴복하다) (reluctantly: 마지못해서)
 ④ 그 정부는 권력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 (넘겨주다, 양도하다)
 ⑤ 그 조사는 유용한 정보를 내놓았다. (산출하다)

C 교과서 핵심 대화 p.067-068

- 01 ④ 02 ④

- 01 ①②③⑤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이고, ④는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표현이다.
 ④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떠니?
 ① 이 문제에 대해 너의 견해는 뭐니?
 ②③⑤ 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 02 빈칸 다음에 너무 비싸다는 부정적인 표현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상대방의 말에 반대하는 표현인 ④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②③⑤는 모두 찬성하는 표현들이다.
 A: 이 새 스마트폰은 놀라워. 멋있어.

C 교과서 기타 대화 p.069

- 01 T 02 F

- 01 두 화자는 사람들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좌석을 비워 두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 02 여자는 슬픈 이야기가 우리의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사람은 남자(The man)임.)

C 교과서 핵심 대화 확인 문제 p.070

- 01 ③ 02 ⑤ 03 I can't agree with you more.

- 01 빈칸 뒤에 의견을 나타내는 대답이 나오므로 빈칸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인 ①②④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③은 '무엇이 너를 더 좋아하게 만드니'라는 의미로 뒤의 말과도 이어지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
- 02 ⑥ 독서 동아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하는 대답은 어색하다.
 ① A: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떠니?
 B: 왜 아니겠어? 나도 그리고 싶어.
 ② A: 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자.
 B: 나는 동의하지 않아. 우리는 서둘러야만 해.
 ③ A: 너는 우리들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B: 내 생각에는, 그거 좋은 생각이야.
 ④ A: 나는 그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B: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내가 보기엔, 그것은 헛갈리거든.
 ⑤ A: 독서 동아리에 대한 너의 의견은 뭐니?
 B: 나는 동의해. 나는 소설을 읽는 것에 재미있어.
- 03 I can't agree with you more.: 나는 전적으로 너에게 동의해. (찬성하는 표현) 라는 구문을 이용한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p.071-072

- 01 doing so 02 I helped an old lady, which made me feel good.

- 01 앞에 나온 동사구 finish her homework after class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전치사 without + (동)명사」 구문이므로 do를 doing으로 바꿔 쓴다.
- 02 선행사인 앞의 절 전체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한다.
 나는 한 노부인을 도와 드렸는데, 그것이 내 기분을 좋게 했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1 p.073

- 01 (1) does (2) doing (3) did (4) do
 02 (1) I did so today (2) I wanted to do so (3) without doing so (4) she does so all the time
 03 (1) but he failed to do so (2) and finally they did so (3) but he could not do so (4) and he enjoys doing so

- 01 (1) 앞에 나온 동사구 work out every day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주어 he이므로 do를 does로 바꿔 쓴다.
 (2) 앞에 나온 동사구 avoid him을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전치사 without + (동)명사」 구문이므로 do를 doing으로 바꿔 쓴다.
 (3) 앞에 나온 동사구 prepare for his presentation more carefully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시제가 과거이므로 do를 did로 바꿔 쓴다.
 (4) 앞에 나온 동사구 appeared at the meeting today를 대신하는 do so를 쓴다.
- 02 (1) 앞에 나온 동사구 get up early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시제가 과거이므로 do를 did로 고쳐 써야 한다.
 우리 엄마는 나에게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오늘 그렇게 했다.
 (2) 앞에 나온 동사구 come to the party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want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do를 to do로 고쳐 써야 한다.
 Jake는 나에게 파티에 올 것을 요청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
 (3) 앞에 나온 동사구 say good-bye to Chris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전치사 without + (동)명사」 구문이므로 do를 do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Eric은 Chris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다.

(4) 앞에 나온 동사구 submit her homework on time을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주어가 she이므로 do를 does로 고쳐 써야 한다.

Brown 선생님은 Jane에게 제때 숙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녀는 항상 그렇게 한다.

- 03 (1) 앞에 나온 동사구 meet his girlfriend at 7:00을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fail + to 부정사」 구문이므로 do를 to do로 고쳐 쓴다.
 (2) 앞에 나온 동사구 win gold medals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시제가 과거이므로 do를 did로 고쳐 쓴다.
 (3) 앞에 나온 동사구 read books listening to music을 대신하는 do so를 쓴다.
 (4) 앞에 나온 동사구 puts others in trouble을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enjoy + 동명사」 구문이므로 do를 doing으로 고쳐 쓴다.

G 교과서 핵심 문법 확인 문제 2

p.074

- 01 (1) who (2) which (3) which (4) which
 02 (1) 그녀는 캐나다에 사는 딸이 한 명 있다.
 (2) 그녀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녀는 캐나다에 살고 있다.
 (3) 나는 카밀레 차를 자주 마시는데, 내 친구가 그것을 추천했다.
 (4)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구 온난화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
 03 (1) a small village, which is located in Sockcho
 (2) my girlfriend, but she was not at home
 (3) the exam, and it surprised everybody
 (4) a chef, who has various cooking knives

- 01 (1) 사람 선행사인 daughters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 대명사 who가 알맞다.
 우리에게는 딸이 두 명 있는데, 그들은 간호사가 되었다.
 (2) 선행사인 앞의 절 전체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알맞다.
 그녀는 그 일을 시간 안에 마쳤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3) 사물 선행사인 violin을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알맞다.
 그는 내게 그의 바이올린을 보여 주었는데, 그것은 Antonio Stradivari가 제작한 Stradivarius였다.
 (4) 사물 선행사인 the Hudson River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알맞다.
 우리 가족은 Hudson강 근처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그것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다.
 02 (1) 사람 선행사인 daughter를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2) 사람 선행사인 daughter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3) 사물 선행사인 tea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다.
 (4) 선행사인 앞의 절 전체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이다.
 03 (1) 사물 선행사인 village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한다.
 (2) ‘~지만’의 의미인 등위접속사 but과 my girlfriend를 가리키는 대명사 she, 과거시제를 이용한다.
 (3) ‘그리고’의 의미인 등위접속사 and와 앞의 절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 it, 과거시제를 이용한다.
 (4) 사람 선행사인 chef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한다.

R 교과서 기타 지문

p.079

01 T 02 F

- 01 필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02 ‘설득의 기술’은 설득의 감성적 측면만을 설명하고 있다. (→ 신뢰성, 논리성 및 감성을 포괄적으로 고찰함.)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지기

p.080-081

- 01 persuade others 02 신뢰성과 논리성, 감성
 03 believes 04 다시 말해서 05 be kept 06 which
 07 Whose statement 08 conducted
 09 Violent games cause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10 supporting 11 (d)epends on(= relies on) 12 Jimin's
 13 another key element 14 Logic
 15 fallacies 또는 erros[mistakes / flaws] 16 (m)ean
 17 meeting in person to make friends 18 (r)each
 19 효과가 있었다 20 is good for 21 does us harm
 22 뉴스에 따르면 23 (T)herefore 24 (a)ppeals to 25 judgment
 26 does not guarantee 27 which 28 ~의 경우에는
 29 a hasty generalization 30 항상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31 우연히 발생했다 32 (s)uch as 33 to win over
 34 (c)ompare 35 consciousness 36 to save
 37 save him 38 donating [to donate] 39 persuading
 40 Using[To use]

T 내신 1등급 대비 1회

p.082-093

- 01 ⑤ 02 ③ 03 ⑤ 04 Asia 05 ③
 06 (b)asis 07 ⑤ 08 ①
 09 너는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10 ④
 11 That's what I'm saying. 12 ① 13 ② 14 ⑤
 15 ③ 16 (1) he regrets doing so (2) I did so 17 ⑤
 18 I did so without hesitation
 19 which was asked to do so by the English teacher 20 ④
 21 ⑤ 22 (1) my mom did so (2) ○ 23 ⑤ 24 ③
 25 ③ 26 doing so was more difficult 27 ④ 28 ⑤
 29 But how can you do so effectively? 30 ② 31 ②
 32 적절한 전달 태도와 믿을 만한 출처 33 ②
 34 but we often use it incorrectly 35 ⑤
 36 meeting in person to make friends 37 ② 38 ③
 39 ② → does not 40 ⑤ 41 ② 42 ① 43 ⑤
 44 ④ 45 Are you having difficulty persuading others?

- 01 ①②③④는 ‘동사 : 명사’ 관계이고, ⑤는 ‘형용사 : 명사’ 관계이다.
 ① 살아남다 : 생존 ② 주저하다 : 주저
 ③ 설득하다 : 설득 ④ 알아보기 : 알아봄, 인식
 ⑤ 의식하는 : 의식
 02 ③ evidence(증거): 어떤 것이 존재하거나 진실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나 흔적 (unclearly(불분명하게) → clearly(분명히, 명확하게))
 ① means(수단): 어떤 것을 달성하거나 하는 방법
 ② expert(전문가):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으로 능숙하게 수행하는 사람
 ④ debate(토론):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에 관한 논의

- ⑤ audience(청중): 어떤 것을 보거나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무리
- 03 '유용하거나 필요해서 가지거나 할 가치가 있는'은 ⑤ '바람직한'이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하는 비서의 유용하거나 필요해서 가지거나 할 가치가 있는 자질들에 대해 몇 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
① 성급한 ② 폭력적인 ③ 공격적인 ④ 합리적인
- 04 Asia(아시아 대륙)
① aptitude(적성, 소질): 어떤 것에 대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능력
② sympathy(동정): 나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 대한 안쓰러운 감정
③ inconvenience(불편함): 특히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추가적 노력을 하도록 강요하는 짜증스러운 문제나 상황
④ automobile(자동차): 흔히 여객 수송을 위해 고안된 네 개의 바퀴가 있는 자동 차량
- 05 ③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자와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에서 in person은 '직접'의 의미이다. 개별적으로는 individually, separately, privately, severally 등이 있다.
① 토론자들은 상대방의 감성에 호소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② 그 관리자가 새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④ 나는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에 각각 호소해야 한다.
- 06 빈칸에는 문맥상 '기반, 토대'이라는 뜻을 가진 basis가 적절하다.
• 훌륭한 결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은 신뢰이다.
• 이 뉴스 기사는 우리 논의의 토대가 되어 줄 것이다.
- 07 <보기>와 ⑤의 moving은 '감동적인' 의미로 쓰였다.
동물원 사육사와 북극곰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감동적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① 그는 그의 물건을 다른 방으로 옮기고 있었다. (옮기는) (stuff: 물건)
② 미국 대륙은 매년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③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움직이는)
④ 마라톤을 할 때 계속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움직이는)
⑤ 그 은행의 감동적인 광고는 유명해졌고,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었다. (감동적인)
- 08 '너는 그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질문에 ① '나는 동의해.'라는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③ 나는 그것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믿어.
④ 나는 그 기사에 동의할 수 없어.
⑤ 나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 09 'How do you feel about + 동명사 ~: 너는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으로 'What do you think of wearing school uniforms?'와 같은 의미이다.
- 10 ④ 'I think (that) ~: 나는 ~이라고 생각해'는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나는 교복이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해.
- 11 'That's what I'm saying.: 그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찬성하는 표현)를 이용한다.
- 12 ① '택시를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말에 '나는 전적으로 너에게 동의해.'라고 찬성한 후, 다시 '교통 체증이 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② A: 너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B: 난 괜찮은 것 같아.
③ A: 나는 교복의 디자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B: 나도 찬성이야.
④ A: 너는 우리 학교의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B: 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⑤ A: 나는 젊은이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좌석을 비워 줘야 한다고 생각해.
B: 난 그것에 반대야.
- 13 ⑥ 버스를 타고 가자는 말에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대답했으므로 빈칸에는 반대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⑥ 지하철이 생각처럼 빠르지 않다는 말에 준비 다 됐으니 출발하자고 대답했으므로 빈칸에는 찬성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따라서, ② '나는 동의할 수 없어. - 나는 동의해.'가 적절하다.
① 나는 동의해. - 나는 동의할 수 없어.
③ 나는 네 편이야. - 나는 그것에 찬성해.
④ 나도 그렇게 생각해. - 물론 아니지.
⑤ 나는 그것에 반대해. -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 14 ⑤ 남자와 여자는 지하철이 가장 빠른 교통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지하철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에 동의했다.)
① 남자와 여자는 늦었고 30분 내에 항구에 도착해야 했다.
② 여자는 그녀와 남자가 버스로 시간 안에 항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③ 남자는 그와 여자가 심한 교통 체증 때문에 늦을 것이라고 믿었다.
④ 남자와 여자는 지하철이 항상 정시 운행을 한다고 느꼈다.
- 15 (B)에서 지난주 학교에 CCTV가 설치 되었음을 언급하고 (D)에서 항상 감시당하는 것이 싫다고 말하자 (A)에서 나쁜 행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CCTV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 (C)에서 오히려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된다.
- 16 (1) 앞에 나온 동사구 laughed at Jenny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regret + 동명사」 구문이므로 do를 do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Chris는 Jenny를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했던 것을 후회한다.
(2) 앞에 나온 동사구 objected to the contract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시제가 과거이므로 do를 did로 고쳐 써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 계약에 반대했고 나도 지난주에 그렇게 했다.
- 17 ⑤ seas는 사물 선행사이고 앞에 콤마(,)가 있으므로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내가 어제 만난 그 남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② 그녀는 그녀가 의사라고 믿었던 한 남성과 인터뷰했다.
③ 그는 야구를 잘하는데, 그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이다.
④ 그 남자는 검은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계속 나를 따라왔다.
⑤ 그 배는 거친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선원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이었다.
- 18 앞에 나온 동사구 stop playing을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시제가 과거이므로 do를 did로 고쳐 써야 한다.
- 19 앞의 절 전체가 선행사이므로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한다.
앞에 나온 동사구 wrote a letter to his mom을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ask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do를 to do로 바꿔 쓴다.
- 20 ④ 앞에 나온 동사구 spent 4 hours watching comic books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주어로 쓰인 동명사이므로 do를 doing으로 바꿔 쓴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므로 do를 does로 고쳐 쓴다.
① Tom은 쓰레기를 줄이기로 결정했고, 그는 요즈음엔 그렇게 한다.
② 그녀는 나에게 방과 후에 신문을 읽으라고 요청했고, 나는 지난밤에 그렇게 했다.
③ Jade는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나도 지금부터 그렇게 할 것이다.
④ 너는 만화책을 보는데 4시간을 소비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너의 건강에 해롭다.
⑤ 그녀는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 21 앞의 절 전체가 선행사이므로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쓰고, 사물 선행사 news를 수식하는 한정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는 which 또는 that을 쓴다. 그러므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⑤ which가 적절하다.
• 지난밤에 나는 집에 오는 길에 Jack과 마주쳤는데, 그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 나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던 그 뉴스를 받아들이 수 없었다.
- 22 (1) 앞에 나온 동사구 stopped eating을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시제가 과거이므로 do를 did로 고쳐 써야 한다.
전화가 울렸을 때, 나는 먹던 것을 멈추었고, 나의 엄마도 그렇게 하셨다.
(2) 앞에 나온 동사구 made mistakes in her presentation을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전치사 for + (동)명사」 구문이므로 do를 doing으로 알맞게 쓰였다.
그녀는 발표하다가 실수를 했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 23 ⑤ plants를 수식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므로 some of them 을 some of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①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유는 아니다.
 ② 수학은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과목이다.
 ③ 꼭대기가 눈으로 덮여 있는 그 산을 보라.
 ④ 지구는 식물과 동물이 있는 유일한 행성이다.
 ⑤ Stanly는 몇몇 식물들을 기르는데, 그것들 중 일부는 열대 식물이다.
- 24 ③ (A)는 homework를 수식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 하고, (B)는 앞에 나온 동사구 finish your math homework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want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do를 to do로 고쳐 써야 하므로 do so가 적절하다.
 너는 오늘까지 기한인 수학 숙제를 다 끝마쳤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렸어. 나는 다음 수학 수업이 두려워.
- 25 ③의 which는 '어떤'의 의미로 뒤에 오는 대명사 one을 수식하는 의문형용사이 고, 나머지는 모두 관계대명사이다.
 ① 그녀는 나에게 내가 이미 들었던 소식을 말해 주었다.
 ② 그는 그것을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은 아주 불가능했다.
 ③ 나는 그것들 사이에서 네가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
 ④ 한 점원이 모자와 옷들을 파는 가게에 있었다.
 ⑤ 나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지워졌음이 틀림없다.
- 26 앞에 나온 동사구 spend 2 hours playing computer games a week를 대신 하는 do so를 쓰고, 주어로 쓰인 동명사이므로 do를 doing으로 바꿔 쓴다. 이때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
- 27 ④는 앞의 절 전체가 선행사이므로 which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선행사이므로 who가 들어간다.
 ① 나는 소녀를 인터뷰했는데, 그녀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우승했다.
 ② 경찰은 남자들을 잡았는데, 그들은 은행을 털었다.
 ③ Catherine은 우리 사장님인데, 그녀는 글씨체가 아름답다.
 ④ 그는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화나게 했다.
 ⑤ Brown은 사람들과 대화를 즐기는데, 그들은 물리학을 가르친다.
- 28 (A) 「need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to persuade가 적절하다.
 (B) 「There are + 복수 명사(elements)」 구문이므로 are가 적절하다.
 (C) 앞에 나온 credibility, logic, and emotion을 가리키므로 them이 적절 하다.
- 29 앞에 나온 동사구 persuade others in situations such as debates, discussions, or public speeches(토론, 토의, 또는 대중 연설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이들을 설득할)를 대신하는 do so를 쓴다.
- 30 ⑥ use와 show는 등위접속사 and로 이어진 병렬관계이므로 동사 show로 고쳐 써야 한다.
- 31 '최근 연구가 그것(폭력적인 게임은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킨다.)을 입증했다'는 내용이므로 ② disproved(틀렸음을 입증하다)는 proved 같은 단어로 바꿔 써야 한다.
- 32 First, credibility comes from proper delivery.와 In addition, credibility comes from reliable sources, ~를 참고한다.
 당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 33 신뢰성 확립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에 관한 내용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② '당신은 신뢰성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가 적절하다.
 ① 왜 적절한 전달 태도는 중요한가?
 ③ 신뢰성을 이용해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
 ④ 설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⑤ 읽기로 너의 신뢰성을 향상시켜라
- 34 앞의 문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 but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 한다.
- 35 ⑥ 「사역동사 let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 구문이므로 reach로 고쳐 써야 한다.
- 36 앞 문장에서 나온 동사구 meeting in person to make friends를 대신하여 do so를 쓰고, 「전치사 of + (동)명사」 구문이므로 do를 doing으로 바꿔 쓴다.

- 37 주어진 문장에서 '나에게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② 앞의 '소셜 미디어 덕분에 친구들과 가까워 졌다'라는 것을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글의 흐름상 ②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38 ⑥ '소셜 미디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므로 reasoning (추리, 추론)은 reason(이유)과 같은 단어로 바꿔 써야 한다.
- 39 ② 주어로 쓰인 동명사는 단수 취급하므로 does no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40 '우연히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것은 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와 같은 의미 이다.
 ①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
 ②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
 ③ 표지를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라.
 ④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 41 소셜 미디어의 장단점에 대한 3명의 연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글이므로 필자의 어조로는 ② '비판적인'이 적절하다.
 ① 긍정적인 ③ 무관심한 ④ 재미있는 ⑤ 교훈적인
- 42 (A) '두 개의 연설을 비교해 보자'라는 내용이므로 compare(비교하다)가 적절하 다. (complement: 보완하다)
 (B) '연구에 따르면'이라는 내용이므로 shows(보여 준다)가 적절하다. (writes: 쓰다)
 (C) '심장 마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므로 reduce(줄이다)가 적절 하다. (increase: 향상시키다)
- 43 ③ '감성이 있는 연설'의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with가 적절하다.
 ⑥ '감성이 없는 연설'의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without이 적절하다.
- 44 ④ 뒤에 나오는 them은 주어진 문장의 the three key elements: credibility, logic, and emotion을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어가는 것이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그러면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신뢰성, 논리성, 감성을 기억하라.
- 45 「have difficulty + 동명사: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구문을 이용한다.

T 내신 1등급 대비 2회

p.094~105

- | | | | | |
|--|---|-------------------------------|------|------|
| 01 ② | 02 back up | 03 ⑤ | 04 ③ | 05 ④ |
| 06 (r)egulation | | 07 ⑤ | 08 ⑤ | |
| 09 What is your view on wearing school uniforms? | | | | 10 ② |
| 11 ④ | 12 ② | 13 ④ | | |
| 14 it seems to me that we have to accept some inconvenience for our safety | | | | |
| 15 ② | 16 ③ | 17 and my father does so, too | | 18 ③ |
| 19 ④ | | | | |
| 20 (1) which disappointed my mother (2) which requires practice (3) who told me to eat | | | | |
| 21 ② | 22 ⑤ | | | |
| 23 (1) ○ (2) we became good friends easily by doing so | | | | |
| 24 ⑤ | 25 but I didn't do so | 26 which impressed us | | |
| 27 ⑤ | 28 ④ | | | |
| 29 persuade others in situations such as debates, discussions, or public speeches | | | | |
| 30 ② | | | | |
| 31 which include the results of recent studies or expert opinions | | | | |
| 32 ② | 33 Violent games cause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 | | |
| 34 ⑤ | | | | |
| 35 (A) we often use incorrectly (B) as a means of making friends | | | | |
| 36 ③ | 37 ④ | 38 ③ | | |
| 39 appeals to tradition to back up her opinion | | 40 ②, ③ | | |
| 41 소셜 미디어의 사용과 범죄 | 42 ① | 43 ③ | 44 ④ | |
| 45 Doing so will make a huge difference. | | | | |

- 01 ② regulation(규정: 규제)에 대한 영영 풀이는 나타나 있지 않고 각각 다음과 같이 풀이 될 수 있다.
- rules made by a government or other authority in order to control the way something is done or the way people behave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나 다른 권력기관에 의해서 만든 규칙)
 - the controlling of an activity or process, usually by means of rules(보통 규칙에 의해서 활동 또는 과정의 통제)
- ③ generation(일반화):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실인 것 같은 진술
 ④ challenge(도전): 대단한 노력을 요하는 새롭고 어려운 것
 ⑤ guarantee(보장하다): 어떤 것을 하기로 약속하거나 어떤 것이 발생할 것임을 약속하다
 ⑥ prevent(방지하다): 어떤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누군가가 어떤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다
- 02 'back up: ~을 뒷받침하다' 구문을 이용한다. (accusation: 혐의)
- 03 빈칸에는 문맥상 ⑤ '타당한, 합리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reasonable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것은 나에게 충분히 타당한 변명처럼 들렸다.
- ① 겁먹은 ② 갈등의 ③ 무관심한 ④ 값비싼
- 04 ③의 '~에 의존하다'는 rely on(= depend on)이다. 따라서 주어 3인칭 단수에 따라 relies to는 relies on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그 환자는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
 ② 그는 스스로를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③ 그 산업은 낮은 원자재 가격에 의존한다.
 ④ 그는 그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과중한 업무로 들었다.
 ⑤ 피해자는 그 사건에 대해 여론에 호소했다.
- 05 빈칸에는 문맥상 ④ '판단, 판결'이라는 뜻을 가진 judgement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저는 보고서를 볼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고 싶습니다.
 -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 ① 전문가 ② 무례함 ③ 과장 ⑤ 설득
- 06 regulation(규정): 어떤 것이 행해지는 방법이나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통제 하기 위해 정부나 다른 권위자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
- 07 <보기>와 ⑤의 delivery는 '전달 태도'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 아름다운 시는 그녀의 형편없는 전달 때문에 망쳐 버렸다. (전달 태도)
- ① 우리는 2일에서 3일 후에 배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배달)
 ② 그 식당은 생선 배달료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배달)
 ③ 그것은 MLB에서 기록된 가장 빠른 투구이다. (던진 공)
 ④ 그녀는 즉시 분만실로 실려 갔다. (분만, 출산)
 ⑤ 그의 연설은 감명 깊었고 그의 전달 태도는 훌륭했다. (전달 태도)
 (impressive: 감명 깊은)
- 08 ⑤ 그가 너무 늦게 끝내서 수정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에 반대한 후 '그는 너무 게을러서 마감 시간을 못 맞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
- ① A: 너는 저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B: 내 생각에는 괜찮을 거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지?
 ② A: 음, 나는 두 가지를 선택했어. 너는 첫 번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B: 내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워.
 ③ A: 나는 그들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좌석을 비워 줘야 한다고 생각해.
 B: 나는 그것에 반대해. 나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④ A: 내 생각으로는 슬픈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B: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우리는 가끔 그것을 읽은 다음 후련한 감정이 들기도 해.
 ⑤ A: 그는 그것을 좀 더 일찍 끝내야만 했어. 우리가 그것을 수정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B: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는 너무 게을러서 마감 시간을 못 맞춘 거야.

- 09 What is your view on + 동명사 ~?: ~에 대한 너의 견해는 무엇이니?라는 '의견을 묻는 표현'을 이용한다.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say to / How do you feel about] wearing school uniforms? (너는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등과 같은 의미이다.
- 10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이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원인 ③ 부작용 ④ 해결책 ⑤ 부산물
- 11 읽을 당시는 우리를 슬프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읽은 후 후련한 감정이 들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④ That's what I'm saying. (내 말이 그 말이야.)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표현인 I don't agree. (나는 동의하지 않아.)와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다.
- 12 밑줄 친 부분 앞 문장 여자의 대화에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좌석을 비워 줘야 한다는 말에 남자의 대답으로 밑줄 친 부분 다음에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I don't think that's reasonable.)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밑줄 친 부분에는 '상대방 의견에 반대하는 표현'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I don't agree. / I disagree with you.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 13 여자가 두 곡 중 어느 곡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남자에게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인 주어진 문장은 두 곡을 다 듣고 난 후인 ④에 들어가는 것이 대화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lyris: 노랫말, 가사)
 나는 첫 번째 곡이 더 나은 거 같아.
- 14 it seems to me that ~: 내게는 ~인 것 같다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
 have to + 동사원형: ~해야 한다 (도덕적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
 남: 나는 CCTV 카메라가 나쁜 행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여: 내 생각은 달라. 나는 저 카메라가 나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 15 30분 이내에 항구에 도착해야 한다는 말에 (A)에서 버스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하자 (D)에서 교통 체증이 심해 늦을 수도 있다는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B)에서 버스 대신 정시 운행을 하는 지하철을 타자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C)에서 그것에 찬성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16 ③ 선행사가 사람이고 앞에 콤마(,)가 있으므로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적절하다.
 Kevin이 그 남자인데, 그는 현악기를 만든다. (stringed: 현이 있는 / instrument: 악기, 기구)
- 17 앞에 나온 동사구 try to plant more trees to prevent floods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주어가 my father이므로 do를 does로 바꿔 쓴다.
- 18 ③ 앞의 절 전체가 선행사이므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① 그녀는 내 수학 선생인데, 그녀는 정장을 입고 타이틀을 매고 있다.
 ②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녀는 재즈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③ 군인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는데, 그것이 큰 소리를 냈다.
 ④ Ron이 그 소년인데, 그는 최근에 Boston으로 이사 갔다.
 ⑤ 그는 새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그것은 그 가게에서 팔렸다.
- 19 ④ 앞에 나온 동사구 recalled the equipment and renewed it's flaw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welcomed의 목적어이므로 do를 doing 또는 to do로 바꿔 쓴다.
 그 회사는 그 장비를 회수하여 그 결함을 개선시켰는데, 고객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환영했다. (flaw: 결함)
- 20 (1), (2) 앞의 절 전체가 선행사이므로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한다.
 (3) doctor는 사람 선행사이고 앞에 콤마(,)가 있으므로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한다.
- 21 앞에 나온 동사구 reserved the new restaurant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시제가 과거이므로 ②처럼 do를 did로 바꿔 쓴다.
- 22 ⑤의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 앞의 명사 선행사인 Auckland이고, 나머지는 모두 앞의 절 전체가 선행사이다.
- ① 나는 야채를 먹지 않는데, 그것은 건강에 나쁘다.
 ② 내 이웃들은 밤에 아주 시끄러운데, 그것은 잠자는 것을 어렵게 한다.
 ③ 나는 내 동생에게 몇 마디 충고를 해주었는데, 그것은 엄마를 만족시켰다.
 ④ New Zealand의 두 번째 수도는 Auckland인데, 그것의 별명은 “항해의 도시”이다.
 ⑤ 우리 할머니는 대학에 다니셨는데, 그것은 1940년대에 꽤 드문 일이었다.
- 23 (1) 앞에 나온 동사구 restructured the expert team을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it takes + 시간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do를 to do로 고쳐 쓴다.
 그 회사는 그 전문가 팀을 구조 조정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 앞에 나온 동사구 told me about his new roommate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전치사 by + (동)명사」 구문이므로 do를 do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Peter는 나에게 그의 새 룸메이트에 대해 말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쉽게 좋은 친구가 되었다.
- 24 ⑤ 앞의 구 to meet on Thursday를 선행사로 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해 영작한다.
- 25 앞에 나온 동사구 report about Korea's low birth rate를 대신하는 do so를 쓴다.
 그는 나에게 한국의 저 출산율에 관해 보고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 26 앞의 절 전체가 선행사이므로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한다.
- 27 ⑤ 앞에 나온 동사구 is talking about the ancient palace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allow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do를 to do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많은 아이들 그룹이 TV 쇼에 나오는데, 나의 남동생도 그렇게 한다.
 ② 나는 나의 애완동물과 집 안에서 놀곤 했는데 나의 엄마도 함께 그렇게 했다.
 ③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의 새끼 코끼리들은 사과를 먹는데, 여기에 있는 원숭이들도 또한 그렇게 한다.
 ④ 세계를 여행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고대의 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도시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28 (C)에서 때때로 다른 이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D)에서 그 방법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B)에서 그 대답에 관한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A)에서 그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29 do so는 앞에 나온 동사구 persuade others in situations such as debates, discussions, or public speeches(토론, 토의, 또는 대중 연설과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이들을 설득하다)를 대신한다.
- 30 (A)에서 신뢰성의 정의를 내리고 (D)에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적절한 전달 태도를 언급한다. (B)에서 적절한 전달 태도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한 후, 마지막으로 (C)에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 억제되어야 할 것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확인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31 reliable sources를 수식하는 계속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이용해 문장을 완성한다.
- 32 신뢰성이 있는 진술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② ‘신뢰할 수 있는’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긍정적인 ③ 바람직한 ④ 효과적인 ⑤ 합리적인
- 33 so는 앞 문장 전체를 대신한다.
 폭력적인 게임은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킨다.
- 34 ⑥ the crime rate와 increase는 능동 관계이므로 increas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35 (A)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는 관계사절의 목적어를 대신하므로 it을 삭제한다.
 (B) 「as a means of (～의 방식으로)」 구문이므로 mean을 means로 고쳐 써야 한다.
- 36 ③ ‘친구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게 해주는 소셜 미디어는 유용하다’라는 주장이므로 useless(쓸모 없는)는 useful(유용한)과 같은 단어로 바꿔 써야 한다.
- 37 밑줄 친 (C)와 ④의 work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다.

- ① 그녀의 오래된 시계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다)
 ② 나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운동하다)
 ③ 이 그림은 그 위대한 화가의 작품이다. (작품)
 ④ 그 약은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indigestion: 소화불량)
 ⑤ 그녀는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항상 바쁘다. (일하다)
- 38 ⑥ 전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성급한 일반화를 한다는 내용이므로 ‘좁은 판단을 한다’는 어색하다. 따라서 narrow judgment(좁은 판단)은 broad judgment(전반적인 판단)으로 바꿔 써야 한다.
- 39 ‘appeal to: ~에 호소하다’와 ‘back up: ~을 뒷받침하다’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다.
- 40 ②③ 선행사인 앞의 구 making friends face to face를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가 적절하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 41 them은 social media use and crime을 가리킨다.
- 42 훌륭한 연사는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① ‘감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망설임 ③ 추론 ④ 과장 ⑤ 일반화
- 43 ③ 가정법 과거 「What if +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 구문이므로 could로 고쳐 써야 한다.
- 44 (A) ‘살아남기 위해 피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므로 survive(살아남다)가 적절하다. (live: 살다)
 (B) ‘심장 마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이므로 reduce(줄이다)가 적절하다. (increase: 늘리다, 증가시키다)
 (C) ‘핵심 요소를 사용할 것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이므로 remember(기억하다)가 적절하다. (forget: 잊다)
- 45 앞에 나온 동사구 use the three key elements: Credibility, Logic, and Emotion을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주어로 쓰인 동명사이므로 do를 doing으로 바꿔 쓴다.

수능형으로 끝내기

p.106~111

01 ④	02 ②	03 ③	04 ⑤	05 ③	06 ①
07 ②	08 ④	09 ③	10 ⑤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①	16 ⑤	17 ⑤	18 ④

- 01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른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④ ‘효과적인 설득’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keynote: (책·연설 등의) 주안점[기조] / affective: 정서적인)
 ① 여론 ② 논리의 법칙 ③ 기초 연설 ⑤ 정서적인 설득
- 02 주어인 문장의 ‘적절한 전달 태도’는 ② 다음에 나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므로 주어인 문장은 ②에 들어가는 것이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첫째로, 신뢰성은 적절한 태도에서 나온다.
- 03 ③ ‘항상 전적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대개 믿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
- 04 소셜 미디어가 범죄를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므로 ⑥ ‘소셜 미디어는 우리에게 이롭다’라는 것은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따라서, Social media does us harm.(소셜 미디어는 우리에게 해롭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05 ③ 친구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연락할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므로 reach 같은 단어로 바꿔 써야 한다.
- 06 (A) fallacie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B) 앞에 나온 동사구 have been meeting in person to make friends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전치사 of + (동)명사」 구문이므로 do를 do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C) crime rate는 단수 취급하므로 is가 적절하다.
- 07 (B)에서 연사가 전통에 호소하고 있지만 (A)에서 전통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D)에서 그 이유를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C)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소셜 미디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정리하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 08 '전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이용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빈칸에는 ④ '성급한 일반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합리적 사고 ② 신중한 판단 ③ 타당한 일반화 ④ 낙관적 추측
- 09 (A)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므로 closer(더 가까운)가 적절하다. (more open: 더 개방적인)
 (B)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므로 reasoning(추론)이 적절하다. (conclusion: 결론)
 (C) '우연히 발생한 것이므로 논리적 상관성이 없다'라는 내용이므로 relationship(상관성)이 적절하다. (operation: 연산)
- 10 ㉠ 「have difficulty + 동명사」 구문이므로 persuad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1 ④ 뒤에 나오는 them은 주어진 문장의 credibility, logic, and emotion을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④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면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신뢰성, 논리성, 감성을 기억하라.
- 12 ④ Good speakers often use effective language to win over an audience. (훌륭한 연사들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종종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를 참고한다.
- 13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⑤ '결론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전혀 흐름과 무관하다. 따라서, undesirable(바람직하지 않은)을 desirable(바람직한)으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 14 (A) '생산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이므로 yield(산출하다)가 적절하다. (develop: 개발하다)
 (B) '서로를 보완해 준다'라는 내용이므로 complement(보완하다)가 적절하다. (complete: 완료하다)
 (C) '함께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이므로 study(공부하다)가 적절하다. (solve: 해결하다)
- 15 남녀 공학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는 ① '남녀 공학: 좋은가 나쁜가?'가 적절하다.
 ②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의 관계
 ③ 논리적 관계의 중요성
 ④ 소셜 미디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⑤ 청소년의 연예계 진출: 좋은가 나쁜가?
- 16 ㉠ 「need + to부정사」 구문이므로 to persuade로 고쳐 써야 한다.
- 17 주어진 문장의 do so는 ⑤ 앞에 있는 persuade others in a debate, discussion, or public speech(토론, 토의, 공공 연설에서 다른 이들을 설득하다)를 가리키므로 주어진 문장은 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 18 책을 추천하는 내용이므로 글의 목적으로는 ④가 적절하다.

바로 앞 문장에서 태호는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반면, 지민이는 그저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잘 나타나 있다.

- 03 첫 행에서 신뢰성(credibility)은 '적절한 전달 태도'에서 나오고, 8행에서는 '믿을 만한 출처'에서 나온 다고 했으므로 'Marking a proper delivery(적절한 전달 태도 만들기)'와 'Citing reliable source(믿을 만한 출처 인용하기)'가 되어야 한다.
- 04 첫 행에서 논리성(logic)은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잘 나타나 있다.
- 05 앞에 나온 동사구 meeting in person to make friends를 대신하는 do so를 쓰고, 「전치사 of + (동)명사」 구문이므로 do를 doing으로 고쳐 쓴다.
- 06 글의 하 9행: Speaker A appeals to tradition to back up her opinion., 하 5행: In the case of Speaker B, she is making a hasty generalization., 하 3행: Speaker C is using false reasoning.을 참고한다.
- 07 첫 행에서 감정(emotion)은 '사랑, 동정심, 분노나 슬픔과 같은 강한 감정이다'라고 잘 나타나 있다.
- 08 win over: ~를 설득하다
- 09 1~2행에서 '훌륭한 연사들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종종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 10 밑줄 친 'do so(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앞 문장 '여러분은 가끔 토론, 토의, 공공 연설에서 다른 이들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한다.

R 교과서 핵심 본문 다시 쓰기

p.115~119

- 01 Sometimes you need to persuade others in situations such as debates, discussions, or public speeches.
- 02 But how can you do so effectively?
- 03 There are three key elements of effective persuasion: credibility, logic, and emotion.
- 04 Let's look at them one by one.
- 05 Credibility means that the audience believes you and your words.
- 06 First, credibility comes from proper delivery.
- 07 If you use clear expressions and show respect for the audience, they will usually trust you more.
- 08 That is to say, hesitation, exaggeration, or rudeness should be kept in check.
- 09 In addition, credibility comes from reliable sources, which include the results of recent studies or expert opinions.
- 10 Look at the two statements below.
- 11 Whose statement do you think is more credible?
- 12 Violent games cause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 13 Recently conducted research has proved it.
- 14 Violent games cause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 15 People say so.
- 16 Taeho cites the results of recent research as supporting evidence for his idea.
- 17 But Jimin just relies on random people's opinions.
- 18 Therefore, Taeho's statement is more credible than Jimin's.
- 19 Logic is a reasonable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 20 It is another key element of effective persuasion, but we often use it incorrectly.
- 21 Let's find the logical fallacies that the three speakers are using in the following debate.
- 22 I think social media is bad as a means of making friends.

서술형으로 끝내기

p.112~114

- 01 신뢰성, 논리성, 감정
- 02 태호는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최근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지만, 지민이는 그저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다.
- 03 a proper delivery, Citing reliable
- 04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
- 05 social media is not a way of doing so
- 06 (1) 전통에 호소하기 (2) 성급한 일반화 하기 (3) 잘못된 추론하기
- 07 사랑, 동정심, 분노나 슬픔과 같은 강한 감정 08 (w)in over
- 09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해 감성에 호소하기 때문
- 10 토론, 토의, 공공 연설에서 다른 이들을 설득하는 것
- 01 3행에서 효과적인 설득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신뢰성(credibility), 논리성(logic), 감정(emotion)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02 밑줄 친 ㉠ '태호의 진술이 지민의 진술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에 대한 이유로는

23 For a long time, people have been meeting in person to make friends.
24 However, social media is not a way of doing so.
25 Therefore, it is not a correct way to make friends.
26 Well, I think social media is very useful.
27 It lets me reach my friends anytime, anywhere.
28 So I became closer to them.
29 Because it worked for me, I am sure that social media is good for others, too.
30 I don't agree.
31 Social media does us harm.
32 News reports say the use of social media is increasing.
33 And the crime rate is also increasing.
34 Therefore, social media causes crime.
35 Did you find any logical fallacies in the debate?
36 Speaker A appeals to tradition to back up her opinion.
37 However, tradition cannot be the basis for our judgment.
38 Doing something for a long time does not guarantee it is correct.
39 In other words, making friends face to face, which is the traditional way, cannot be the reason to reject social media.
40 In the case of Speaker B, she is making a hasty generalization.
41 She just uses her personal situation to make a broad judgment.
42 Those who use social media do not always become closer to one

another.
43 Speaker C is using false reasoning.
44 The increase in social media use and crime just happened to occur at the same time; there is no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m.
45 Emotions are strong feelings such as love, sympathy, anger, or grief.
46 Good speakers often use effective language to win over an audience.
47 Let's compare two different speeches.
48 A man is losing consciousness.
49 He is bleeding a lot.
50 He needs more blood to survive.
51 But there is no one to save him.
52 What if you could do so?
53 Well, you can!
54 Donate your blood and save a life!
55 Recent medical research shows that donating blood can reduce the risk of a heart attack.
56 Donate your blood and stay healthy.
57 Are you having difficulty persuading others?
58 Do you want to be a better speaker?
59 Then, please remember the three key elements: credibility, logic, and emotion.
60 Using them will make a huge difference.

최종점검 모의고사

Lesson 03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22~129

01 ③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②
07 ④	08 ①	09 ⑤	10 ④	11 ⑤	12 ③
13 ③	14 ④	15 ④	16 ③	17 ⑤	18 ③
19 ④	20 ②	21 ④	22 ③	23 ⑤	24 ⑤
25 ②					

- 01 '터널 끝에 보이는 빛'은 길고 힘든 시기[상황]가 거의 끝났음을 비유하는 것으로 ③ '힘든 상황의 끝'이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다.
 ① 불가능한 꿈
 ② 무수한 가능성
 ④ 성실함의 중요성
 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의 어려움 (earnest: 성실함)
- 02 ⓐⓑⓒⓓ는 모두 Emma를 가리키지만, ⓒ는 Lisa를 가리킨다.
- 03 (A) '~해 보이다'의 뜻을 나타내는 「look+ 주격보어(형용사)」가 쓰였으므로, 형용사 guilty(죄책감을 느끼는)가 적절하다.
 (B) 동사 promise는 to부정사를 목적어로 가지므로 to help(도와 주기로)가 적절하다.
 (C) remember의 목적어로 명사절이 쓰였으므로 간접의문문의 어순인 「의문사 + 주어 + 동사」로 쓰인 who her friends are(누가 자기의 친구인지)가 적절하다.
- 04 "안녕, Sue, 이제 그것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야"는 Lisa가 Sue를 놀리면서 하는 말이므로 물리는 Sue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⑤ "물리는 Sue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가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다.
 ① Sue는 물리에서 뛰어나다.
 ② Sue는 물리 외에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한다.
 ③ Sue는 물리의 숙련자가 되고 싶어 한다.
 ④ Lisa는 Sue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안다.
- 05 Lisa가 I에게 너희들이 친구인 줄 알았다고 말하자, I가 '나도 그랬지'라고 말한 후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나도 그랬다'라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앞 내용을 동조할 때는 「so + 조동사 + 주어」로 표현하며, 앞서 일반동사 think의 과거 시제 동사인 thought이 쓰였으므로 조동사 did를 쓴 ③ so did I가 적절하다.
 ① 나도 그렇다
 ② 나도 그렇다
 ④ 나도 그렇지 않다
 ⑤ 나도 그렇지 않았다
- 06 시험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기로 약속한 친구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모두 무시하여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해 화가 난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② '화'(anger 또는 fury)가 적절하다.
 ① 기쁨
 ③ 두려움
 ④ 솔직함
 ⑤ 용기
- 07 Sue의 물리 시험을 도와주기로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Lisa가 아닌 Emma이므로 ④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08 주어진 문장은 '그것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였다'라는 의미이며, ⓐ의 앞 문장에 '마지막 두 문제에 답할 수 없었다'는 말이 오므로 마지막 두 문제가 주어진 문장의 '그것들'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의 뒤로는 좌절된 채로 고개를 들어

- Emma를 보았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9 등위접속사 and로 명령문을 이끄는 동사 원형인 stop과 put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⑤ putting은 pu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0 '차마 그것을 할 수 없었다.'에서 그것은 앞서 언급된 Emma의 부정행위에 대해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이므로 ④ '나는 선생님에게 Emma에 관해 알리고 싶지 않았다.'가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다.
 ①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② 나는 부정행위에 대해 Emma를 용서할 수 없었다.
 ③ 나는 Emma의 부정행위에 관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⑤ 나는 Emma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 11 부정행위를 하는 친구를 보고 그것은 공평하지 않은 일이며, 자신은 결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⑤ "부정행위 하는 사람보다 낙제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다."가 적절하다.
 ① 행동보다는 말이 쉽다.
 ②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라.
 ③ 인내심은 희망의 기술이다.
 ④ 유일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 12 4행에서 I는 Emma에게 매우 화가 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언급된 것에서 화가 난 것은 Emma가 아닌 화자인 I임을 알 수 있으므로
 ③ 'Emma는 화자가 그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매우 화가 났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화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매우 걱정했다.
 ② 화자는 Emma가 항상 시험을 잘 봤던 것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④ 화자는 Emma가 시험 도중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⑤ 화자는 마지막 두 문제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 수 없었다.
- 13 'I'는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에 실망하고 화가 나 시험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제출하게 된 상황이므로, 'I'의 심경을 묘사하는 단어는
 ③ disappointed and upset (실망하고 화가 난)이 적절하다.
 ① 신이 나고 쾌활한
 ② 겁을 먹고 두려운
 ④ 안도하고 동정하는
 ⑤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 14 점심시간에 Emma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주어진 글의 마지막 문장 바로 다음에, (C)도서관에 가서 노트를 점검하러 갔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A)오후에 역사 시험이 시작되어 다시 Emma 뒤에 앉았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B)시험 도중에 Emma의 부정행위와 우정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5 문맥상 '만약 ~하면'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며, 조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하므로 ⓐwhether는 if로 써야 한다.
- 16 부정행위를 신고할지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실어할 것에 대한 걱정으로 'I'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므로 ③ shame(수치심, 부끄러움)은 confusion(혼란)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17 (D)의 마지막 행에서 'Emma는 항상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있어!'라는 말이 있으므로 ⑥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① 1~2행에서 Emma를 식당에서 찾을 수 없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② 3~4행에서 이번에는 휴대 전화를 꺼내지 않았다고 언급되어 있다.
 ③ 9~10행에서 집중이 되지 않아 노트를 다시 볼 수 없었음이 언급되어 있다.
 ④ 10~11행에서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없었고, 모두가 싫어할 것이라는 걱정이 언급되어 있다.
- 18 '~에게 ...할 것을 요청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ask + 목적어 + 목적격보어(to부정사)」가 쓰였으므로, ⓒsinging은 to s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9 이 글을 쓴 Jinsu는 합창단에 소속되어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Minjae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있으므로, 이 글의 목적으로 ④ '합창단 소식과 안부를 전하려고'가 적절하다.
- 20 (A) saw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리이므로 접속사 that이 적절하다.
 (B) 지각동사 hear가 쓰여 「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현재분사[동사원

형))의 형태로 써야 하므로 현재분사 walking이 적절하다.
(C)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의미상의 주어인 she(Emma)는 '놀라게 된'(수동)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surprised가 적절하다.

- 21 Emma가 휴대 전화를 보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발견되어 교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연민을 느끼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④ compassion(연민, 동정심) 또는 pity(연민, 동정) 등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격노 ② 놀라움
③ 경멸, 멸시 ⑤ 재미, 우스움
- 22 주어진 문장은 '바로 그때, Pendanski 선생님께서 나를 목격하셨고 내가 부정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셨어.'라는 의미이며, ③의 뒤에 있는 He가 Mr. Pensanski에 해당하고, 선생님이 이제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주어진 문장은 그 앞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23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 받을 수 있어 심란한 상황이므로 ⑤ light(가벼운)는 heavy(무거운)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24 (A)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면서 had don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사로 what이 적절하다.
(B) '너무 ~해서 ...할 수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too + 형용사[부사] + to 부정사」 구문이 쓰였으므로 to worry가 적절하다.
(C) about의 목적어로 명사절이 쓰였으므로 간접의문문의 어순인 「의문사 + 주어 + 동사」로 쓰인 how Dad's operation was going이 적절하다.
- 25 2행부터 Sue의 연락에 2주간 답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심장 마비 이후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는 2주 전에 심장 마비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으며, 5~6행에서 심장 수술을 받는 것은 현재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Lesson 04 독해 실전 모의고사 p.130~137

01 ⑤	02 ②	03 ③	04 ②	05 ②	06 ①
07 ③	08 ②	09 ①	10 ②	11 ③	12 ①
13 ③	14 ①	15 ③	16 ④	17 ①	18 ②
19 ⑤	20 ①	21 ③	22 ②	23 ⑤	24 ②
25 ④					

- 01 빈칸 뒤에서 토론, 토의 또는 대중 연설과 같은 상황이라는 말이 있고, 이어서 효과적인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⑤ persuade(설득하다)가 적절하다.
① 막다, 방지하다 ② 기쁘게 하다
③ 약속하다 ④ 준비하다
- 02 선행사 sources를 수식하는 계속적 용법으로 관계사절이 이어지고 있으며, 계속적 용법으로 관계대명사 that은 쓰일 수 없으므로 ⑥ that은 which로 고쳐 써야 한다.
- 03 (A) 효과적인 설득의 세 가지 요소에 관한 설명이 이어지므로 '필수적인'이라는 뜻의 essential이 적절하다. (trivial: 사소한)
(B)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존경심을 보여 준다면 청중이 더 믿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믿다, 의지하다'라는 뜻의 count on이 적절하다. (comment on: ~에 대해 논평하다)
(C) 지민이는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만 하였으므로, '불특정의, 임의의'라는 뜻의 random이 적절하다. (particular: 특정한)
- 04 빈칸 앞 문장에서 청중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 준다면 그들이 대개 연설자를 더 믿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망설임이나 과장, 무례함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빈칸에는 ② '조심스럽게 억제되어야 한다'가 적절하다. (= be kept in check)
①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한다
③ 정확하게 묘사되어야 한다
④ 연설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⑤ 청중에 의해 갈채를 받아야 한다
- 05 빈칸 앞에서 태호는 최근 연구 결과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 지민

이는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의존하므로, 빈칸 뒤에서는 태호의 진술이 지민의 진술보다 신뢰성이 있다는 결론이 이어지므로 문맥상 Thus(따라서, 그러므로)나 Therefore 등이 적절하다.

- ① 그러나 ③ 게다가
④ 반면에 ⑤ 비슷하게
- 06 태호는 최근의 연구 결과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고, 지민이는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의존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태호의 진술이 더욱 신뢰성 있다는 결론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① '태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 reliable))
② 지민이의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하고 있다.
③ 태호와 지민이는 둘다 연구 결과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④ 대중 연설의 목적은 청중들로부터 존경심을 얻는 것이다.
⑤ 대중 연설자들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 그들의 연설을 과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dramatize: 과장하다 / credibility: 신뢰성)
- 07 설득의 요소 중 하나인 신뢰성의 효과를 두 개의 진술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요지로 ③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신뢰성을 이용할 수 있다.'가 적절하다.
① 신뢰성은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쉽다.
② 당신은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과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ggerate: 과장하다)
④ 신뢰할 수 있는 연구들은 올바른 판단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⑤ 당신은 연설을 할 때 논리성과 감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 08 소셜 미디어는 친구를 사귀는 방식으로 나쁘다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 후,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므로 ⑥ correct는 incorrect(옳지 않은)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09 (A) fallacies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이므로 관계대명사 that이 적절하다.
(B) 사역동사 let이 쓰여 「사역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의 형태로 써야 하므로 동사원형 reach가 적절하다.
(C) 문장의 주어는 who가 이끄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는 Those이므로 복수 동사 do가 적절하다.
- 10 빈칸 앞 문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직접 만나왔다고 언급되었으며, 빈칸 다음에는 소셜미디어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However(그러나)가 적절하다.
① 마찬가지로 ③ 그러므로
④ 게다가 ⑤ 예를 들어
- 11 주어진 문장은 '무언가를 오랫동안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③의 뒤에서 '오랫동안 하는 것'에 해당하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친구를 사귀는 전통적인 방식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은 그 앞인 ③에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 12 빈칸 뒤에서 소셜 미디어의 사용과 범죄의 증가는 우연히 발생했을 뿐, 논리적 상관성이 없다고 언급되었으므로 연사 C는 잘못된 추론을 하고 있어(is using false reasoning) 인과 관계의 오류를 저지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① '인과 관계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이 적절하다. (causal: 인과 관계의)
② 편승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bandwagon: 우세한 세력, 유행, 시류)
③ 인신 공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ad hominem: 인신 공격의)
④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⑤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 13 연사 C는 소셜 미디어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범죄율의 증가가 소셜 미디어 사용 증가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사용 증가가 범죄율 증가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③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연사 A, C는 소셜 미디어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연사 B는 소셜 미디어 사용이 매우 유용하다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 14 연설에서 흔히 일어나는 논리적 오류를 연사 3명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글이므로, 글의 제목으로 ① '흔한 논리적 오류들의 예시'가 적절하다.
② 왜 대중 연설이 중요한지에 관한 세 가지 이유

- ③ 가장 간과되는 소셜 미디어의 이점들
- ④ 왜 가상의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 아닌가?
- ⑤ 당신의 연설에서 성급한 일반화를 피하는 방법
- 15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상황을 예시로 드는 부분이므로 ③ conscience (양심)는 consciousness(의식)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16 2형식 동사 stay는 형용사 보어와 함께 '~하게 유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므로 ④ health(건강)는 형용사 healthy(건강한)로 고쳐 써야 한다.
- 17 한 문장에서 언급된 동사구가 다음 문장에서 반복될 때, do so로 대체하여 쓸 수 있다. 글의 흐름상 '그를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만일 당신이 그를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내용이 자연스러우므로, do so는 앞 문장의 'save him'을 의미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현혈하다
 - ③ 심장 마비에 걸리다
 - ④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다
 - ⑤ 강력한 감정을 사용하다
- 18 빈칸 다음에 '현혈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세요.'라는 말로 보아, 최근 의학 연구에서 현혈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심장 마비의 위험을 낮추다'가 적절하다.
 - ① 심장 마비의 위험을 높이다
 - ③ 심장 마비의 징후를 무시하다
 - ④ 심장 마비의 치료를 늦추다
 - ⑤ 심장 마비의 고통을 악화시키다 (discomfort: (가벼운) 통증, 불편)
- 19 마지막 문단에서 설득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용하면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며, 감성 또한 설득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이므로 ⑤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20 감성이 있는 연설과 감성이 없는 연설을 비교하며 감성을 사용한 연설의 효과를 설명하는 글이므로,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① '감성을 이용해 사람을 설득하다'가 적절하다.
- 21 '2부: 논리성'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므로, ③irrational(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은 reasonable(합리적인) 정도로 바꿔 써야 한다.
 - ① 포괄적인, 종합적인
 - ② 믿을 수 있는
 - ④ 감명[감동]을 주다 (= move)
 - ⑤ 답, 해답
- 22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 효과적인 세 가지 요소에 관한 책을 추천하는 내용의 글로 빈칸 뒤에 토론, 토의 또는 대중 연설과 같은 상황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빈칸에는 ② convince(설득하다; 확신시키다)나 persuade가 적절하다.
 - ① 권한을 부여하다
 - ③ 좌절시키다
 - ④ 인지하다
 - ⑤ 보류하다; 억제하다, 허락하지 않다
- 23 책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며, 남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때 책의 내용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독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글이므로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⑤ '사람들에게 <설득의 기술>을 읽도록 권유하려고'이다.
 - ① 서평을 요청하려고
 - ②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 ③ <설득의 기술>을 비평하려고
 - ④ 사람들이 명확한 표현을 쓰도록 설득하려고
- 24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주어진 글의 내용 다음에, 그 이유로 남녀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인 결과를 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B)가 와야 한다. 그 예로서 남녀 학생이 함께 모둠 활동을 같이할 때 서로를 보완해 주고, 과제에 관한 다양한 통찰력을 이끌어 낸다는 (A)가 이어지며, 결론적으로, 남녀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C)가 오는 흐름이 적절하다.
- 25 문장의 주어 동명사(Studying together)는 단수 취급하므로, ④help는 helps로 고쳐 써야 한다.

- 01 (A) during (B) for (C) with 02 그녀(Emma)는 물리를 잘했다.
- 03 Lisa asked me if [whether] she had a problem.
- 04 It was no use calling her at home, either.
- 05 (1) file into (2) subject 06 (A) beyond (B) To (C) up
- 07 ① I should think ② I should do 08 (D) to fail (E) cheating
- 09 "Stop writing and put your pens down," ["Stop writing and put down your pens,"]
- 10 (a) thinking[thought] (b) worse
- 11 ① The next exam was history, my favorite subject
② my notes ③ reporting her to a teacher
- 12 Everyone would hate me if I did that. [If I did that, everyone would hate me.]
- 13 (A) → Emma has been getting good grades by cheating all the time.
(C) → I was asking myself, "Should I tell Mr. Reed once the exam is finished?"
- 14 (c)onfusion
- 15 (1) ① → if[whether] (2) ② → to text
- 16 I had too much on my mind to worry about Sue.
- 17 필자는 시험 전에 스마트폰을 끄지 않기로 했다.
- 18 (1) cheat (2) conflicted
- 19 (1) ① → walk[walking] (2) ② → crying (3) ③ → because
- 20 It was no use trying to hold back the tears.
- 21 As everyone watched her, I felt all my frustration turn[turning] to pity.
- 22 if [whether] I thought she was a cheat, too.
- 23 I was reading texts from my mom to see how things were going.
- 24 frank 25 (a) sorry (b) worried

- 01 (A) '시험 중간 동안'이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하는 동안'을 뜻하는 전치사 during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B) '2주 동안'이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하는 동안'을 뜻하는 전치사 for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C) '화를 내며'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하며, ~하면서'를 뜻하는 전치사 with가 적절하다.
- 02 '~에 문제가 있다'를 나타내는 표현 「have a problem with~」에 부정어 not과 함께 쓰였으므로, 밑줄 친 부분은 '물리에 문제가 없었다, 즉 물리를 잘했다'를 의미한다.
- 03 의문문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먼저 전달 동사 said to를 asked로 바꿔 쓰고, 인용 부호(“ ”)를 삭제한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경우 접속사 if나 whether를 넣어 「if [whether]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또한 의문사절의 시제를 주절의 시제에 일치시켜야 하므로, 의문사절의 시제는 과거시제 had로 고쳐 쓴다.
- 04 '~해도 소용없다'를 나타내는 표현 「It is no use + 동명사」를 이용하며, 문맥상 그녀에게 전화한 것은 과거의 일임을 알 수 있으므로, be 동사의 시제는 was로 변형해서 쓴다. 또한 부정문에서 '~도 그렇다'를 의미하는 부사 either는 문장 끝에 쓴다.
- 05 (1) file into(앞뒤로) 줄지어 가다: 줄 서서 ...에 들어가다
(2) subject(과목, 학과): 학교, 대학 등에서 연구되는 지식의 영역
- 06 (A) '그것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였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be동사와 함께 쓰여 '~을 넘어, 능가하여'를 뜻하는 전치사 beyond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B) '놀라게도'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가 ...하게도'를 나타내는 표현 「to one's + 감정명사」를 이루는 전치사 to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문두에 위치하므로 대문자 T로 시작해야 한다.

- (C) '결국 낙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결국 ~하게 되다'를 나타내는 표현 「end up + 동명사」를 이루는 부사 up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7 「의문사 + to부정사」는 「의문사 + 주어 + should + 동사원형」으로 바뀌 쓸 수 있다. 따라서 ㉠what to think는 what I should think와 같은 의미로 '어떻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라는 뜻이 되며, ㉡what to do는 what I should do와 같은 의미로 '어떻게[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뜻이 된다.
- 08 나는 (E)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성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명예롭게 (D)실패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D) '명예롭게 실패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을 더 선호하다'를 나타내는 표현 「prefer + to부정사」를 이루는 to fail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E) '부정행위를 함으로써'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함으로써'를 나타내는 표현 「by + 동명사」를 이루는 cheating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9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므로 대문자 Stop을 문두에 쓴다. stop은 '~하던 것을 멈추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므로 '쓰던 것을 멈추는 것'은 Stop writing으로 표현한다. 이어 and로 문장을 연결하고, '내려놓다'라는 의미의 이어 동사 put down의 목적어인 your pens는 put down의 사이 또는 끝에 올 수 있으므로 put your pens down 또는 put down your pens로 쓴다.
- 10 Sue는 다른 사람들의 (a)생각에 대해 염려하여 Emma의 부정행위에 관해 침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e는 부정행위가 실패보다 (b)더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 11 ㉠ 앞서 언급된 다음 시험이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는 사실(The next exam was history, my favorite subject)을 가리킨다.
㉡ 마지막으로 노트를 다시 보기 위해 도서관에 갔지만 '그것들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문맥이므로 복수 대명사 them은 my notes를 가리킨다.
㉢ 선생님께 Emma의 부정행위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고민해 보았지만 '그것들' 할 수 없었다는 문맥이므로, it은 reporting her to a teacher를 가리킨다.
- 12 '(만약) ~라면 ...할 텐데'라는 의미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의 어순 「if + 주어 + 동사의 과거형~, 주어 + 조동사의 과거형 + 동사원형...」을 이용해서 쓰며, if 조건절은 주절의 앞이나 뒤에 모두 쓸 수 있다.
- 13 (A) 과거 시점부터 현재 말하는 시점까지 Emma가 계속 부정행위를 하여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완료 시제의 능동태인 has been get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C) 시험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수동태인 is finished로 고쳐 써야 한다.
- 14 필자는 스스로에게 '시험이 끝나면 Reed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Emma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는? 우리 우정은 어떻게 되지? 잠깐, 우리가 진정으로 친구이기는 했나?'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완전한 혼란으로 가득찬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confusion(혼란)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5 ㉠ wonder의 명사절을 이끌며,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리이므로 if 또는 whether로 고쳐 써야 한다.
㉡ '목적어가 ~하기를 기다리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wait for + 목적어 + to 부정사」 구문이 쓰였으므로 to text로 고쳐 써야 한다.
- 16 '너무 ~해서 ...할 수 없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too + 형용사[부사] + to부정사」 구문을 이용하여 쓴다. '마음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은 much on my mind로 쓰며, 'Sue에 대해 걱정하다'는 worry about Sue로 써서 완성한다.
- 17 시험 도중에 스마트폰을 꺼야 하는 것과 아버지의 수술 상황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싶은 것 사이에 갈등하던 필자가 '무거운 마음으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부정행위 의심을 받더라도 시험 전에 스마트폰을 끄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8 (1) 누군가를 속이거나 사실이 아닌 무엇인가를 그들이 믿게 만드는 사람: cheat(사기꾼, 속이는 사람)
(2) 당신이 강력하지만 서로 너무나 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conflicted(갈등을 겪는)
- 19 ㉠ 지각동사 hear는 「지각동사 + 목적어 + 목적격보어(현재분사[동사원형])」의 형태로 쓰므로 to walk는 동사원형 walk 또는 현재분사 wal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cannot help+ 동명사」의 형태로 쓰므로 to cry는 cry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이어서 주어 + 동사를 갖춘 절이 있으므로 접속사 because로 고쳐 써야 한다.
- 20 '~해도 소용없다'를 나타내는 표현 「It is no use + 동명사」를 이용하며, 그녀가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한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be 동사의 시제는 was로 변형해서 쓴다. 또한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하다'는 '~하려고 노력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try to + 부정사」를 이용하여 쓴다.
- 21 '~할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as를 이용하여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을 때'를 'As everyone watched her'로 나타내고, 종속절에는 감각동사 feel을 「feel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현재분사])」의 5형식으로 쓴다. '실망감이 연민으로 바뀌다'는 '~으로 바뀌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turn + to부정사」를 이용해서 쓴다.
- 22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은 전달 동사 said to는 asked[inquired of]로 바꾸고, 인용 부호(“ ”) 삭제한 후, 접속사 if나 whether를 넣어 「if [whether] + 주어 + 동사」의 어순으로 쓴다. 의문사절의 시제를 주절의 시제에 일치시켜야 하므로, 주절의 시제 asked에 맞춰 의문사절의 시제를 과거시제 thought로 쓴다. 또한 인칭도 상황에 맞게 바꾸어야 하므로 you는 I로, I는 she로 고쳐 쓴다.
- 23 '나는 엄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었어.'는 과거 진행형 시제를 이용하여 'I was reading texts from my mom.'으로 나타내며, '알기 위해'는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 '~하기 위해'를 써서 'to see'로 쓴다. to see의 목적어인 명사절로 간접의문문이 쓰였으므로, 간접의문문의 어순인 「의문사 + 주어 + 동사」의 형태인 'how things were going'으로 쓴다.
- 24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어 그동안 친구에게 연락할 겨를이 없었던 것을 설명하며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사과를 구하는 상황이며, 영영 풀이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에 솔직하고 직접적인'이라는 의미이므로 빈칸에는 frank(솔직한)를 써야 한다.
- 25 Emma는 Sue에게 연락이 두절되었던 것에 (a)사과를 했다. 오해와는 달리 그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수술에 대해 매우 (b)걱정하여 그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문자 메시지를 기다려야 했다.
be worried about: ~에 대해 걱정하다

Lesson 04 **서술형 실전 모의고사**

p.146~153

- 01 ㉠ 다른 이들을 설득하다
㉡ 폭력적인 게임은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킨다고 말한다.
- 02 (1) 적절한 전달 (태도) (2) 믿을 만한 출처
- 03 ㉢, kept → be kept ㉣, Jimin → Jimin's (statement).
- 04 credibility comes from reliable sources, which include the results of recent studies or expert opinions.
- 05 Whose statement do you think is more credible?
- 06 (a) Taeho (b) the results of recent research
- 07 fallacies
- 08 ㉠ meeting in person to make friends
㉡ social media use and crime
- 09 making friends face to face, which is the traditional way, cannot be the reason to reject social media
- 10 who use social media do not always
- 11 Speaker A: 논리의 근거로서 전통에 호소하는 것
Speaker B: 개인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성급한 일반화를 한 것
Speaker C: 논리적 상관성이 없는 경우에 대해 잘못된 추론을 한 것
- 12 Speaker A: ①, ④ Speaker B: ②, ③ Speaker C: ⑤, ⑥
- 13 ㉠ ㉢ ㉡ ㉣ ㉠
- 14 What if you could do so?
- 15 신뢰성, 논리성, 감성
- 16 (1) win over (2) donate
- 17 (a) persuasive (b) sympathy
- 18 (A) Emotional (B) Audiences
- 19 ① Logic ② feelings

20 What do you think of wearing school uniforms?

21 (b)enefits 22 That's what I'm saying.

23 (a) in (b) on 24 It's not as fast as you think.

25 (A) traffic (B) agreed

- 01 ㉠ do so는 '그렇게 하다'를 의미하는 대동사구로, 바로 앞에 나온 'persuade others(다른 이들을 설득하다)'를 가리킨다.
㉡ say so는 '그렇게 말하다'를 의미하므로, 앞 문장의 'Violent games cause aggressive behavior in children. (폭력적인 게임은 아이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킨다.)'를 가리킨다.
- 02 (1), (2) 신뢰성은 적절한 전달 (태도)(proper delivery)와 믿을 만한 출처 (reliable sources)에서 온다고 5행과 8행에 언급되어 있다.
- 03 (1) ㉢ 망설임, 과장, 무례함은 '억제되는' 대상이므로 수동태인 be kept로 고쳐 써야 한다.
(2) ㉣ 태호의 진술과 비교되는 대상은 지민이가 아닌, 지민이의 진술이므로 Jimin's statement 또는 statement를 생략한 소유대명사 형태인 Jimin's 로 고쳐 써야 한다.
- 04 '신뢰성은 믿을 만한 출처로부터 나오며'는 「A come from B: B로부터 A가 나온다」를 활용하여 쓴다. '그것들은'이 가리키는 것이 reliable sources이며, 이어 추가 서술이 이어지므로,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쓰고 선행사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을 활용하여 쓴다. 이때 관계사절의 동사는 선행사 reliable sources와 수일치하여 복수 동사 include로 써야 한다.
- 05 의문형용사 whose는 '누구의'라는 의미로 바로 뒤에 명사와 함께 문두에서 의문사 역할을 하므로 Whose statement로 쓴다. think, believe, suppose, say 등의 동사를 넣어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오므로, 「의문사 + do you think [believe / suppose / say] + 주어 + 동사 ~ ?」의 어순으로 쓴다. 보여인 credible은 3음절 이상의 형용사이므로 more를 붙여 비교급을 만들어 more credible으로 쓴다.
- 06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연사가 (b)최근 연구의 결과를 인용한다는 점에서 (a)태호의 진술이 더 신뢰성이 있다.
- 07 3명의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논리적 오류들을 예시로 보여주며 설득에서 논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글이므로, 빈칸에는 fallacies(오류들)를 써야 한다.
- 08 ㉠: doing so가 포함된 문장은 '소셜 미디어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라는 의미이며, 이때 그렇게 하는 방식이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직접 만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 문장의 meeting in person to make friends를 가리킨다.
㉡: them이 포함된 문장은 '그들 사이에는 논리적 상관성이 없다'라는 의미이며, 앞의 내용으로 보아 논리적 상관성이 없는 두 요소로 social media use and crime(소셜 미디어의 사용과 범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 09 '전통적인 방식인 서로 얼굴을 맞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은 동명사 주어인 making friends face to face로 표현한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쓰고 이어 선행사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서술하는 것이므로 선행사인 making friends face to face 뒤에 콤마를 붙여 관계사절을 쓴다. 주격 관계대명사 절의 동사는 선행사와 수 일치해야 하며, 동명사구가 주어로 쓰였으므로 관계사절의 동사는 단수동사 is로 쓴다.
- 10 those는 관계대명사 who가 이끄는 절의 수식을 받으면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므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those who use social media 로 나타낸다. 또한 '항상 ~은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은 always 앞에 not을 붙여 쓴다.
- 11 Speaker A: 연사 A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다.
Speaker B: 연사 B는 전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개인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Speaker C: 연사 C는 소셜 미디어와 범죄의 증가는 우연히 동시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상관성이 없는 두 경우를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추론의 오류를 범했다.
- 12 Speaker A의 오류는 '전통에의 호소하는 오류'이므로, 오랫동안 해왔다는 이유를

주장의 근거로 뒷받침하는 ㉠과 ㉣가 같은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Speaker B의 오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므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 ㉡와 ㉢이 같은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Speaker C의 오류는 '잘못된 추론의 오류'이므로, 논리적 상관성이 없는 두 사건을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기는 ㉤와 ㉥이 같은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 13 <보기> ㉠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 나의 꿈은 건축가가 되는 것이다.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 나는 산책하기 위해서 보통 공원에 간다.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에 사용된 to부정사는 '생존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므로,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목적이 쓰인 문장이다. <보기>의 ㉢과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
㉤에 사용된 to부정사는 '그를 구해줄'이라고 해석되므로, to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쓰인 문장이다. <보기>의 ㉠과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
㉥에 사용된 to부정사는 '더 나은 연결자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to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쓰인 문장이다. <보기>의 ㉡와 같은 용법으로 쓰였다.
- 14 '~라면 어떻게 하겠는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what if ~ ?」구문과 '그렇게 하다'의 의미로 앞서 나온 동사구를 대신 표현하는 'do so'를 활용하여 쓴다.
- 15 them이 포함된 문장은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이며, 앞에서 세 가지 핵심 요소인 'credibility, logic, and emotion'이 언급되고 잘 기억하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them이 가리키는 바는 '신뢰성, 논리성, 감성'이 적절하다.
- 16 (1) 누군가가 무언가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바꾸도록 하다: win over(설득하다,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다)
(2) 돈, 식량, 의류 등을 누군가나 무언가, 특히 자선 단체에 주다: donate(기부 [기증]하다)
- 17 연결 A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b)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a) 설득력이 있다.
- 18 (A)감성적인 연결은 당신을 (B)청중에게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
- 19 ㉠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더 나은 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요소 '신뢰성, 논리성, 감성'을 기억하라고 했으므로, 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신뢰성과 감성을 제외하면 ㉠에 들어갈 말은 Logic(논리성)이다.
㉡ 강한 감정 중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연결을 예시로 들며, 감성이 있는 연결의 효과를 보여주는 글이므로 '강력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감성(Emotion)의 세부 항목, 즉 사랑(love), 동정심(sympathy), 분노(anger)나 슬픔(grief)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갈 말은 feelings(감정)이다.
- 20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표현 'What do you think of~'를 이용하며, 전치사 of 뒤에는 동명사가 오므로 wear를 wearing으로 바꿔 쓴다.
- 21 M2는 교복을 입는 것의 이점으로 무엇을 아침에 입을지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영영 풀이는 '도움이 되고 유용한 것'이라는 의미의 복수형 이므로 빈칸에는 benefits(이점들)를 써야 한다.
- 22 M1이 교복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자, M2는 빈칸 다음에 티셔츠와 반바지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상대방의 말에 찬성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이'는 That is의 줄임말인 That's로 쓰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네 말이 그 말이야]'는 관계대명사 what을 활용하여 'what I am saying'으로 나타낸다.
- 23 (a) '시간 안에'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관용 표현 'in time'를 이루는 전치사 in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b) '정시에'라는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관용 표현 'on time'을 이루는 전치사 on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24 '~만큼 ...하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not so[as] + 원급 + as」구문을 활용하여 쓴다.
- 25 항구에 어떻게 빨리 갈지 의논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A)교통 혼잡으로 버스를 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지하철을 타는 것에 (B)동의했다.
congestion: 혼잡

01 ③	02 ④	03 fact	04 ④	05 ①	
06 I'm anxious that I won't be able to do it well.					
07 ③, ⑤	08 나는 네가 잘 할 것이라고 확신해.		09 ④		
10 중요한 것들을 수첩에 적는 것		11 ②			
12 (1) The teacher asked me who hadn't finished the homework.					
(2) He inquired of her if she would go to the concert that weekend.					
(3) She asked the guest to fill in that form.					
13 (1) when it comes to enjoying music (2) ○		14 ②	15 ②		
16 ⑤					
17 The book was so interesting that I couldn't help finishing reading it.					
18 ②	19 ③	20 ③	21 ③	22 ③	23 ②
24 ⑤		25 ②			
26 ㉠ She was looking at it ㉡ walk(ing) quietly up to her table					
27 ④	28 ⑤	29 to see how things were going	30 ①		

- 01 ③ materialistic(물질주의적인): 다른 것보다 돈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less → more)
- ① conflicted(갈등하는):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② overcome(극복하다): 감정이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조절하다
 ④ apologize(사과하다): 잘못된 일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다
 ⑤ operation(수술): 병이 들었거나 손상된 부위를 제거, 교체 또는 고치기 위해서 누군가의 몸을 절개하는 과정
- 02 '그렇게 하도록 주어진 권리'는 ④ '허락'이 적절하다.
 그 섬을 방문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당국으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주어진 권리를 구해야 한다.
 ① 가치 ② 충고 ③ 불평 ⑤ 걱정
- 03 fact(사실)
- ① forgetful(잘 잊어 먹는): 기억해야 할 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② complain(불평하다): 무언가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하다
 ③ theory(이론): 무엇이 발생하는 방법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이상의 생각
 ④ address(부르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 누군가를 특정한 이름이나 직함을 부른다.
- 04 ④ keep one's eyes in(눈에 익히다)을 take one's eyes off(~에서 눈을 떼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나는 책상 위의 만화책을 치워버렸다.
 ② 그는 야식을 먹으려는 그의 욕구를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③ 우리 학교의 농구부는 결승을 준비하고 있다.
 ④ 우리 아기는 사방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땔 수가 없다.
 ⑤ 놀랍게도, 유명한 여배우가 나와 같은 레스토랑에 있었다.
- 05 ① 시험을 망칠까 봐 걱정된다는 말에 그 말을 듣게 되어서 기쁘다고 대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 ② A: 밴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 어때?
 B: 생각해 볼게.
 ③ A: 나는 네가 패스트푸드 먹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
 B: 네 의견에 동의해.
 ④ A: 나는 유명 가수가 우리 학교 축제에 올 거라고 들었어.
 B: 너 몹시 흥분되겠네!
 ⑤ A: 우리나라 양궁팀이 도쿄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땀어.
 B: 정말이니? 대단하다! (archery: 양궁)
- 06 I'm anxious that ~: 나는 ~이 걱정이 돼(= I'm worried that ~) (걱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용한다.
- 07 영어 이야기 대회에 출전할 친구에게 충고와 격려하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마음 속에 그 감정을 떠올리는 것이 어때?'와 같은 충고하는 표현인 ③과 ⑥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8 I bet (that) ~: 나는 ~을 확신한다 (확실성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이용한다.
- 09 (C)에서 책을 빌려줘서 떡볶이를 사겠다고 말하자 (B)에서 탁구 치기로 한 것을 상기시켜 준다. (D)에서 그것을 잊고 있었음을 사과하고, 마지막으로 (A)에서 잘 잊어버리지 않도록 충고를 해주는 흐름이 적절하다.
- 10 3행 How about writing down important things in your planner?(중요한 것[일]들은 너의 수첩에 적어 놓는 것이 어때?)를 참고한다.
- 11 ② 「There is no use + 동명사: ~해도 소용없다」 구문이므로 to go를 go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① 네가 전화했을 때 그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다.
 ②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내 아들은 TV를 보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④ 지난주에 나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하느라 바빴다.
 ⑤ 진실을 듣고 나니,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 12 (1)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ask[inquire of] (+ 목적어) + 의문사 + 주어 + 동사」 구문으로 쓴다.
 선생님은 나에게 "누가 숙제를 끝내지 못했지?"라고 말씀하셨다.
 (2)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ask[inquire of] (+ 목적어) + if[whether] + 주어 + 동사」 구문이고, this는 that으로 바꿔 쓴다.
 그는 그녀에게 "너는 이번 주말에 그 콘서트에 갈거니?"라고 말했다.
 (3) 명령문의 간접화법은 「tell [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이고, this는 that으로 바꿔 쓴다.
 그녀는 그 손님에게 "이 양식에 기입해주세요."라고 말했다.
- 13 (1) 「when it comes to + 동명사」 구문이므로 enjoy를 enjoy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음악을 즐기는데 있어 나이는 상관이 없다.
 (2) prevent A from + 동명사: A가 ~하지 못하게 하다
 그 식물이 마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것을 축축한 수건으로 덮어라. (damp: 축축한)
- 14 ② 부정명령문의 간접화법은 「tell[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not + to부정사」 구문이고, 장소 부사 here는 there로 바꿔 써야 한다.
 그녀는 그에게 "여기서 떠들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 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ask [inquire of] (+ 목적어) + if[whether] + 주어 + 동사」, 시제가 과거이므로 asked, 인칭대명사 you → I, can → could로 옮겨 전환되었다.
 그는 나에게 "너는 올 수 있니?"라고 말했다.
- ③ 명령문의 간접화법 전환: 「tell[ask / order / advise / request] (+ 목적어) + to부정사」 구문, told → advised, 목적어 me, 인용 부호 (" ") 삭제, to부정사, 인칭대명사 your → my로 옮겨 전환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저녁 식사 전에 네 숙제를 끝내렴."이라고 말했다.
- ④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 전환: 「ask[inquire of] (+ 목적어) + 의문사 + 주어 + 동사」 구문, said to → asked, which, 인칭대명사 you → I, 시제 일치 want → wanted로 옮겨 전환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어떤 영화가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 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직접화법 전환: asked → said, whether 삭제, could → can, 인칭대명사 her → my 옮겨 전환되었다.
 Laura는 그녀가 그녀의 가족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 15 ② 「look forward to + 동명사」 구문이므로 to meet을 meet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그들은 그를 만나는 것을 고대했다. 하지만 그는 그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 16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간접화법은 ⑤ 처럼 「ask[inquire of] (+ 목적어) + 의문사 + 주어 + 동사」 구문이다.
 따라서 전달 동사 said to → asked[inquired of]로, 목적어 me, 인용 부호 (" ") 삭제, 의문사 who(주어 역할),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일치 broke → had broken로, 지시대명사 this → that로 전환하고, ? → .로 바꿔 쓴다.
 그녀는 나에게 "누가 이 꽃병을 깨뜨렸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누가 이 꽃병을 깨뜨렸는지를 물었다.

- 17 「so + 형용사 + that: 너무 ~해서 ...한」 구문과 「cannot help + 동명사: ~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but + 원형부정사)」 구문을 이용한다.
- 18 명령문의 직접화법은 인용 부호(“ ”)와 전달동사 say (to)를 이용하여 ②처럼 쓸 수 있다.
- 19 ㉠ 시험 기간에는 항상 속이 불편했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sick(메스꺼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오늘 싫어하는 과목인 물리 시험을 본다는 내용이므로 빈칸에는 unfortunately (불행히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① 나쁜 - 나도 모르게
 ② 좋은 - 다행히도
 ③ 메스꺼운 - 불행히도
 ④ 죄책감이 드는 - 놀랍게도
 ⑤ 우울한 - 운이 좋게도
- 20 (A) 시험 기간의 마지막 날이므로 ‘힘든 시기의 끝’을 의미하는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의 light(빛)가 적절하다. (dark: 어둠)
 (B) 한번 돌아보고 재빨리 눈길을 돌려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내용 이므로 quickly(재빠르게)가 적절하다. (slowly: 천천히)
 (C) 시선이 마주치는 걸 피했다는 내용이므로 contact(마주침)가 적절하다. (contract: 계약)
- 21 앞에서 2주 동안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말 뒤에 (B)에서 전화와 메시지를 모두 무시했고 (D)에서 집에 전화해도 역시 소용없었으며 (C)에서 그녀가 그저 바빴다는 말을 전해 들었음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A)에서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 22 부정행위를 목격한 후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는 내용 이므로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은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놀랍게도, 그녀는 책상 아래에 스마트폰을 두고 그것을 재빨리 훑쳐보고 있었다.
- 23 ㉡ 고개를 든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에 스마트폰을 치워버린 것이므로 과거완료 had pu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동사 smiled를 수식하는 부사 awkwardly(어색하게)로 고쳐 써야 한다.
- 24 ㉠ exam과 finish는 수동 관계이므로 수동태 is finished로 고쳐 써야 한다.
- 25 문맥상 ㉡는 여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므로 collect(모으다, 수집하다)는 concentrate(집중하다)와 같은 단어로 고쳐 써야 한다.
- 26 ㉠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는 내용이므로 them을 스마트폰을 가리키는 대명사 it으로 고쳐 써야 한다.
 ㉢ 「지각동사 hear + 목적어 + 목적격보어(동사원형[현재분사])」 구문이므로 walked를 walk(ing)으로 고쳐 써야 한다.
- 27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없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는 내용이므로 ㉣ ‘그녀의 미소를 애써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은 전체 흐름과 무관하다. 따라서, to hold back her smile → to hold back the tears(눈물을 참으려고)로 바꿔 써야 한다.
- 28 ㉡와 worry는 수동 관계이므로 과거분사 worried로 고쳐 써야 한다.
- 29 see의 목적어인 간접의문문 「의문사 + 주어 + 동사」 어순으로 쓴다.
- 30 7행에서 (아버지는 병원에 계신다)라고 했으므로 ① 지금은 건강하시다는 내용 상 일치하지 않는다.
 ① 그녀의 아버지는 심장 마비를 일으키셨지만, 지금은 건강하시다. (→ 지금 병원에 계신다.)
 ② 그녀는 시험 시간 동안 그녀의 전화를 보다가 선생님께 걸렸다.
 ③ 그녀가 스마트폰을 읽는 것을 Sue가 목격했다.
 ④ 그녀는 Sue의 전화와 메시지를 무시한 것에 대해 정말로 미안해한다.
 ⑤ 그녀는 Sue에게 사과했고 그녀의 힘든 시간에 대해 설명했다.

Lesson 04 **적중 모의고사**

p.163~171

- 01 ③ 02 ③ 03 beef 04 ③ 05 ③
 06 It seems to me that it helps us focus.
 07 나는 그것에 전적으로 찬성해서, 나는 주로 내가 공부할 때 음악을 들어.

08 ①, ⑤

09 학교 급식을 좀 더 건강하고 영양가 있게 만드는 것과 무도회 입장권을 각 학생당 20달러씩 낮추는 것

10 ⑤ 11 (1) ○ (2) during hot summer days by doing so

12 ② 13 (1) is not going to do so (2) keep doing so 14 ③

15 ① 16 ⑤ 17 ④

18 Our team won the last game yesterday, which was surprising to me.

19 ④

20 hesitation, exaggeration, or rudeness should be kept in check

21 ② 22 ② 23 ③ 24 ①

25 서로 얼굴을 맞대고 친구를 사귀는 것 26 ②

27 Those who use social media do not always become closer to one another.

28 ㉠ to win over an audience ㉡ What if you could do so?

29 remember the three key elements: credibility, logic, and emotion

30 ④

01 ③ monitor(추적 관찰하다): 일정 시간 이상의 변화를 보기 위해 어떤 상황을 주의 깊게 보거나 살피다 (roughly(대략) → carefully(주의 깊게))

① increase(증가하다): 양이나 수, 정도가 더 커지다

② effective(효과적인): 성공적이고, 의도했던 방식으로 일[작동]하는 것

④ emotion(감성): 어떤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행복, 사랑, 공포, 분노, 증오와 같은 감정

⑤ donate(헌혈하다): 아프거나 다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피를 신체에서 뱌도록 허락하다

02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평가나 측정, 또는 기록하다'는 ㉢ '비교하다'이다.

우리는 두 개의 보고서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평가나 측정, 또는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① 산출하다 ② 거부하다 ④ 알아보다 ⑤ 보장하다

03 beef(소고기)

① element(요소): 어떤 것의 일부분

② benefit(이점): 어떤 것으로부터 얻은 장점이나 이익

③ fallacy(오류): 주장이나 생각을 틀리게 만드는 실수

④ exaggeration(과장): 어떤 것을 실제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쁘게 표현하는 서술

04 ㉢ '~을 최대한 활용하다'의 의미가 적절하므로 least를 most 같은 단어로 고쳐 써야 한다.

① 모든 것은 홍콩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② 컴퓨터는 우리에게 이롭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해를 줄 수도 있다.

③ 당신은 당신의 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

④ 나는 당신이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할 것을 제안한다. (accusation: 비난)

⑤ 우리는 여기 도달하기 위해 나침반 하나와 운에 많이 의지해야 했다.

05 ㉢ 책상이 너무 비싸다는 말에 반대한다고 말한 후 '돈 만큼의 가치가 없다'라고 답하는 것은 어색하다.

① A: 그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B: 일리가 있는 말이야.

② A: 그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B: 나는 매우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

③ A: 내 생각에는 책상이 너무 비싸.

B: 나는 네 말에 동의하지 않아. 그것은 돈 만큼의 가치가 없어.

④ A: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B: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환상적이야. 그것은 별이 쏟아질 것만 같아.

⑤ A: 너는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기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B: 나는 그것은 잔인하다고 생각해. 좁은 공간에 갇힌 동물들은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없어.

